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주름기법을 이용한 천연염색 의상디자인 연구

A Study on Natural-Dyed Clothing Design Focusing on Pleating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섬유디자인전공)

노 금 영



주름기법을 이용한 천연염색 의상디자인 연구

지도교수 노 은 희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섬유디자인전공)

노 금 영





주름기법을 이용한 천연염색 의상디자인 연구

A Study on Natural-Dyed Clothing Design
Focusing on Pleating

지도교수 노 은 희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섬유디자인전공)

노 금 영





노금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위 원

위 원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 논문개요 ····· | VII |
|--|-----|
|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Χ |
| I. 서론 ··································· | 1 |
| A. 연구의 목적 ······ | 1 |
| B. 연구 방법 ····· | 2 |
| Ⅱ. 본론 ··································· | 3 |
| A. 주름의 의의 ······ | 3 |
| 1. 주름의 종류 ····· | 3 |
| 2. 주름의 이론적 배경 | 17 |
| B. 천연염색 ····· | 45 |
| 1. 천연 염료의 종류 ····· | 46 |
| 2. 천연 염색 방법 ····· | 46 |
| C. 주름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 | 57 |
| 1. 섬유 작품 사례 ‥‥‥‥ | 57 |
| 2. 의상 사례 ····· | 71 |
| D. 작품 제작 ······ | 81 |
| 1. 디자인 의도 및 컨셉 ‥‥‥‥ | 81 |
| 2. 연구자 기법 제시 ····· | 82 |
| 3. 디자인 제시 ····· | 87 |
| Ⅲ. 결론 ····· | 128 |
| 참고문헌 ····· | 130 |





표 목차

| <丑 | 1> | 한 쪽 끝 개더링 ‥‥‥‥ | 5 |
|----|-----|--------------------------------|----|
| <莊 | 2> | 양쪽 끝 개더링과 전체 개더링 ‥‥‥‥ | 6 |
| <莊 | 3> | 한쪽 끝 러플, 양쪽 끝 러플, 플리츠 러플 ····· | 8 |
| <莊 | 4> | 플라운스 | 9 |
| <莊 | 5> | 다양한 스모킹 | 10 |
| <莊 | 6> | 셔링잡기 | 12 |
| <莊 | 7> | 구겨진 주름의 예시 ‥‥‥ | 14 |
| <莊 | 8> | 기본 턱 | 15 |
| <莊 | 9> | 기계주름의 모양 ‥‥‥‥ | 16 |
| <莊 | 10> | › 화학적 열처리 주름의 모양 ····· | 16 |
| <莊 | 11> | · 주름 디테일 표현의 특성 ····· | 44 |
| <莊 | 12> | · 염료식물에 따른 천연염료의 분류 ····· | 46 |
| <莊 | 13> | 아매염처리의 4가지 방법 ‥‥‥‥ | 47 |
| <莊 | 14> | · 작업과정 ····· | 82 |
| <莊 | 15> | > 봉제테크닉에 따른 주름의 모양 ····· | 84 |
| <표 | 16> | · 작품 계획표 ····· | 87 |





그림 목차

| <그림 | 1> 로인클로스 ····· | 19 |
|-----|--|----|
| <그림 | 2> 쉬스 스커트 ····· | 19 |
| <그림 | 3> 칼라시리스와 킬트 스커트 ‥‥‥‥ | 19 |
| <그림 | 4> 쉔토트 ····· | 19 |
| <그림 | 5>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 | 21 |
| | 6> 이오닉키톤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 7> 하마티온 | 22 |
| <그림 | 8> 클라미스 ····· | 22 |
| <그림 | 9> 튜니카 ····· | 23 |
| <그림 | 10> 토가 ····· | 23 |
| <그림 | 11> 스톨라 | 23 |
| <그림 | 12> 스톨라 위에 입은 팔라 ‥‥‥‥ | 23 |
| <그림 | 13> 튜닉과 팔루다멘튬 ‥‥‥‥ | 25 |
| <그림 | 14> 달마니카 ····· | 25 |
| <그림 | 15> 팔루다멘튬과 달마니카를 입은 황제와 성직자 ‥‥‥‥ | 26 |
| <그림 | 16> 우플랑드 ····· | 26 |
| <그림 | 17> 볼리오를 착용한 조각형태 ‥‥‥‥ | 27 |
| <그림 | 18> 13세기 남자들의 복식형태 ‥‥‥‥ | 27 |
| <그림 | 19> 망토 ····· | 28 |
| <그림 | 20> 꼬뜨 ····· | 28 |
| <그림 | 21> 꼬따르디 ······ | 28 |
| <그림 | 22> 쉬르코 ····· | 28 |
| <그림 | 23> 로브 ····· | 30 |
| | 24> 패티코트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 25> 러플칼라 ····· | 30 |
| <그림 | 26> 푸르푸앵 ····· | 30 |
| | 27> 17세기 초기의 복식 ····· | |
| <그림 | 28> 17세기 후기의 복식 ····· | 31 |



| ヘコピ | 29> | 刊公도드고드 | 32 |
|-----|-----|----------------------------------|----|
| <그림 | 30> | 로브아라 프랑세즈 ‥‥‥ | 32 |
| <그림 | 31> | 파니에를 입은 마리앙투아네트 ‥‥‥ | 33 |
| <그림 | 32> | 르뎅고트가운 | 33 |
| <그림 | 33> | 슈미즈 가운 ‥‥‥ | 34 |
| <그림 | 34> | 나폴레옹1세의 왕비 조세핀의 대관식 ‥‥‥‥ | 34 |
| <그림 | 35> |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 - 트레인 ‥‥‥‥ | 34 |
| <그림 | 36> | 1831년 로맨틱 스타일 ‥‥‥‥ | 35 |
| <그림 | 37> | 나폴레옹 3세의 비 유제니 ‥‥‥ | 37 |
| <그림 | 38> | 크리놀린 착용 모습 ‥‥‥‥ | 37 |
| <그림 | 39> | 숄을 두른 크리놀린 ‥‥‥ | 37 |
| <그림 | 40> | 1851년 블루머 ····· | 37 |
| <그림 | 41> | 1870년대 버슬스타일 ‥‥‥‥ | 39 |
| <그림 | 42> | 1868년대 버슬스타일 | 39 |
| <그림 | 43> | 푸아레 기모노코트와 호블드레스 | 42 |
| <그림 | 44> | 비오네 바이어스식 재단 드레스 ‥‥‥ | 42 |
| <그림 | 45> | 이사도라 덩컨의 무대의상 ‥‥‥ | 43 |
| <그림 | 46> | 포튜니의 델포스 ····· | 43 |
| <그림 | 47> | 감나무와 감 염색물 | 49 |
| <그림 | 48> | 쪽 풀과 쪽 염색물 | 51 |
| <그림 | 49> | 황벽과 황벽 염색물 ‥‥‥ | 51 |
| <그림 | 50> | 락 충과 락 염색물 | 52 |
| <그림 | 51> | 치자열매와 치자 염색물 ‥‥‥ | 53 |
| <그림 | 52> | 소목심재와 소목 염색물 | 55 |
| | | 코치닐 연지충과 코치닐 염색물 ‥‥‥ | |
| <그림 | 54> | 메리골드 꽃과 메리골드 염색물 ‥‥‥ | 56 |
| <그림 | 55> | 고윤희 - The pleated blue ····· | 60 |
| | | 홍명숙 - 여심 ····· | |
| <그림 | 57> | 조영주 - 한글을 차용한 디자인 ····· | 61 |
| <그림 | 58> | 김성달 - The mixed techniques ····· | 62 |



| <그딤 | 59> | 김정달 - 유기적 개세 ····· | 62 |
|------|-----|---|----|
| <그림 | 60> | 정예금 - 기억의 장川 ‥‥‥ | 63 |
| <그림 | 61> | 정예금 - 버들 | 63 |
| <그림 | 62> | 이성순 - 또 다른 세계 3 | 64 |
| <그림 | 63> | 이성순 - 창밖 | 64 |
| <그림 | 64> | 이영주 - 지난 날의 기억 ‥‥‥ | 65 |
| <그림 | 65> | 이영주 - 늦가을 | 65 |
| <그림 | 66> | 이신재 - 사랑 ‥‥‥ | 66 |
| <그림 | 67> | 왕경애 - 순환구조 ····· | 66 |
| <그림 | 68> | Elizabeth Griffin - The time before the time after \cdots | 67 |
| <그림 | 69> | Justine Limpus parish - Scarf/Nelace ····· | 67 |
| <그림 | 70> | Arcia Waldman - Lemonade dream····· | 68 |
| <그림 | 71> | Inge Stahl - Heart constriction ····· | 68 |
| <그림 | 72> | Priscilla Sage - Azure symphysis | 69 |
| <그림 | 73> | Ludwicka Zythkiewicz - Ostrowska ····· | 69 |
| <그림 | 74> | 김연희 - 실루엣 ‥‥‥‥ | 70 |
| <그림 | 75> | Brenna Buss - Earth elegance ······ | 70 |
| <그림 | 76> | 이세이 미야케 - 2015년, Spring/Summer ····· | 74 |
| <그림 | 77> | 미야케 - 자유로운 조형감을 나타냄 ‥‥‥ | 74 |
| <그림 | 78> | 미야케 - 2013년, Spring/Summer ····· | 74 |
| <그림 | 79> | 미야케 - 앵그르 누드 콜라쥬 ‥‥‥‥ | 74 |
| <그림 | 80> | 요시키 히시누마 - 빵틀로 나타낸 열고정 주름표현 ‥‥‥ | 75 |
| <그림 | 81> | 히시누마 - 열고정 주름표현 ‥‥‥ | 75 |
| <그림 | 82> | 히시누마 의상의 부분적 주름 표현 ‥‥‥‥ | 75 |
| <그림 | 83> | 히시누마 의상의 부분적 주름 표현 ‥‥‥‥ | 75 |
| <그림 | 84> | 이영희 - 개더기법 | 76 |
| | | 김정희 - 플리츠기법 | |
| | | 이광훈 -프릴기법 ‥‥‥ | |
| <그림 | 87> | 지춘희 - 러플기법 ‥‥‥‥ | 77 |
| < 기리 | 88> | 범영수 - 투피스 | 77 |



| <그림 | 89> | 범영순 - 트렌치코트 ‥‥‥‥ 77 |
|-----|-----|---|
| <그림 | 90> | 박재원 - 옵아트 ····· 78 |
| <그림 | 91> | Jason, T Kelly Murray - 전화번호부 드레스 ······ 78 |
| <그림 | 92> | 김혜경 - 라벨 ‥‥‥‥ 78 |
| <그림 | 93> | 2015년 S/S 꼼데 가르숑 파리컬렉션 - 아트웨어 1 ····· 79 |
| <그림 | 94> | 2015년 S/S 꼼데 가르숑 파리컬렉션 - 아트웨어 2 ····· 79 |
| <그림 | 95> | 코샤렐 - 러플 ‥‥‥‥ 80 |
| /ㄱ리 | 065 | 아비에크 마르티니 _ 서리 궈프 90 |





작품 목차

| <작품 | 1> | | | |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
|-----|-----|----|----|--|------|----|---|-------|-------|---|-------|--|--|-------|---|--|-------|-------|--|---|---|-------|------|---|-----|
| <작품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
| <작품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
| <작품 | 4> | ٠. | ٠. | | | | | | | | | | | | | | | • | | • | | | | | 98 |
| <작품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
| <작품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
| <작품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
| <작품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
| <작품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
| <작품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
| <작품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
| <작품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
| <작품 | 13> | | | | | | | | | | | | | | | | | | | | | | | | 125 |





논문개요

의복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하여 왔고 인간 생활의 문화, 예술의 일부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 시 되고 있다. 21세기 고도의 산업화의 발달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인간에게 보다 안락한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복의 재료인 섬유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가장 밀착되어 왔던 요소 중의 하나이다. 급진전된 정보화의 시대에서 패션 섬유 산업은 빠른 주기로 변화하는 트랜드를 반영하여 수용해야 하고 소재 표현에서 의상 디자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자율성을 표현하고 있다. 의상디자인에 사용되는 섬유조형은 다양한 디자인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과거의디자인이 표현하는 보수적인 아이템보다 창조적인 것을 최근에는 추구하고 있다. 주름은 복식에서 표면을 장식하는 여러 종류의 디테일의 일부분으로 기능성과 독창적인조형 예술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한섬유에 주름이라는 표현기법을 디테일로 사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요즘 트랜드인 참살이 웰빙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소재와 염료를 천연으로 사용하고 주름기법을 디테일로 응용하여 상품성과 기능성. 실용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외면적표출 방법으로 단연 의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소재를 추구하며 보다 나은 삶을 부여하고 개성을살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름의 조형적 특성과주름의 종류, 주름을 적용한 섬유작품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의상디자인에 접목하여 친환경적인 상품성 있는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한다. 섬유 표면에 조형미를 나타내는 주름을 입체적이고 부조적인 질감으로 표현하여 하나의텍스타일 소재로 이용하여 조형적 특성을 분석 연구를 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헌적 조사방법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주름관련의 국내외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고 과거와 현재의 주름의 기원을 복식 문화 문헌을 통하여 고대, 중세. 근세, 근대,현대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복식에 사용되는 주름의 종류를 조사하고 봉제 테크닉에의한 방법,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표현한 주름기법, 또한 열 고정 처리로 영구적인기계주름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여성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화학적 처리가 가공된 재료를 이용하여 봉제 테크닉과 수작업으로 열을 가해 주름을 잡아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여 의상에 부분적으로 접목하여 디자인했고 또는 원단으로 만들어 패턴을 재단하여 제작 하였다. 본 연구자의 의상은 천연염색을 하여 독창적인 문양을 표현하였고 소재를 달리하여 만든 주름 공정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패션 디자인을 전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염색과 봉제테크닉으로 인한 주름기법을 의복에 장식적인 요소를 배가시키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특수 가공된 재료를 활용한 주름기법은 요철이 있는 볼륨을 주어 입체감을 주고 표면적인 예술성을 부여 시킬 수 있었고 독특한 표현 감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 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는 효과를 주었다.

셋째, 특수 가공재료의 주름 효과는 예술적인 창작성을 표현할 수 있고 아울러 독 창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었지만 수 공예에 의하여 제작되므로 사간과 노력이 따른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기계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아울러 친환경적인 신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공 테크닉에 맞춘 새로운 첨단 표현 방식을 개발하여 그가능성을 확대하고 더욱 개성 있고 독특한 미적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Natural-Dyed Clothing Design Focusing on Pleating

Noh Kum Young

Advisor : Prof. Noh Eun-hee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lothing has existed with humans since human history began and its role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as part of culture and art in our society. Diverse changes in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21st century have been attempted in many areas of life, and a more comfortable living quality is pursued. Fabrics as a material used in clothing have developed along with people and is one of the things closest to them. In the era of advanced informatization the fashion fabric industry should reflect and accept the changing trends, as well fashion design using expressions with a material, emphasizes a sculptural aspect following the demands of different times, and expresses its own unique autonomy. Fabric art used in fashion design has developed in diverse areas, but creative design has recently been pursued rather than the conservative designs of the past. Pleats are one detail used to decorate the surface of dresses and have been applauded as an important genre to express functional and creative artistic beaut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design using pleats as an expressive technique in natural-dyed fabric.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natural materials and dyes from the perspective of healing the body and mind with the trending concept of wellbeing and applied the pleating technique to details to create a design a product with value,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As more women have jobs these days, they have considered fashion important as a means to express their existence through their appearance. They pursue differentiated designs and eco-friendly materials for a better quality life and a unique charact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pleats, the different types of pleats, and fabric designs where pleats are applied and then the results are applied to fashion design, with a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 design which is eco-friendly and valuable as a product. Pleats used to express artistic beauty on the surface of a fabric were expressed as a cubic and relief with the use of one textile and its sculptu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sed.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based on a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us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on pleats and costume culture with the origins of pleats categorized as ancient, middle, modern, recent and contemporary ages. A specific focus was given to the kinds of pleats used for fashion design, the techniques of dressmaking and design with chemically treated pleats and permanent mechanical pleats treated with heat. For this study, dressmaking technique using a material which was processed with chemicals was used, the cubic texture of the pleats which were made manually with heat was applied to part of the material, or a pattern was made with pleated cloth for the design in this study. The clothing in this study has unique patterns made through the natural dying technique and used pleats of different materials to develop designs with different appearance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f the ornamental aspect of pleats is combined with multiple dyeing and sewing techniques, the clothing designed can have an effect to attract attention from others and any defects can be minimized.

Second, pleats using specially-processed materials can have a volume and a cubic effect through which a unique expressive and creative sense can be shown.

Third, the effect of pleats made of specially-processed materials is a form of artistic creativity and as they can be developed as fashion design products, high-added values can be created, but there is a limit in that a lot of time and effort is required as the pleats are made manually.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methods to deal with making pleats automatically are needed, and eco-friendly new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New and advanced expressive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o extend the possibilities and the future-oriented strategies to satisfy the characteristics desired and a unique aesthetic sense should be developed.





1. 서론

A. 연구의 목적

의복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하여 왔고 인간 생활의 문화, 예술의 일부로서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 시 되고 있다. 21세기 고도의 산업화의 발달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 되고 있고 급속한 발달은 인간에게보다 안락한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복의 재료인 섬유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고 인간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왔던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섬유 재료는 생활필수품으로서 또한 미적 조형 언어로서 우리 생활에 실용적인 기능과예술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업 과학의 비약적인 발달은 새로운 섬유재료를 발명하고 있으며 섬유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위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현대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인간은 고차원적인 삶의 질을 원하고 오늘날 패션 섬유 산업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있다. 급진전된 정보화의 시대에서 패션 섬유 산업은 빠른 주기로 변화하는 트랜드를 반영하여 수용해야 하고 소재 표현에서 의상 디자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자율성을 표현하고 있다. 의상디자인에 사용되는 섬유조형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과거의 디자인이 표현하는 보수적인 아이템보다 창조적인 것을 최근에는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해 오는 환경오염은 인체에 알려지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인간은 건강 추구를위하여 오염된 환경을 피하고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천연 소재와 염색, 스마트한 기능성을 가미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한 섬유에 주름이라는 표현기법을 디테일로 사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름은 복식에서 표면을 장식하는 여러 종류의 디테일의 일부분으로 기능성과 독창적인 조형 예술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으 며 최근에는 주름 하나로 주름자체를 디자인하여 상품화하여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 는 브랜드가 패션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요즘 트랜드인 참살이 웰빙과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소





재와 염료를 천연으로 사용하고 주름기법을 디테일로 응용하여 상품성과 기능성. 실용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여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외면적 표출 방법으로 단연 의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웰빙 소재를 추구하며 보다 나은 삶을 부여받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름의 조형적 특성과 주름의 종류, 주름을 적용한 섬유작품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의상디자인에 접목하여 친환경적인 의상을 제시하여 상품성 있는 제품 개발 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섬유 표면에 조형미를 나타내는 주름은 섬유 표면을 입체적으로 장식해주고 기능성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섬유 외면에 부조적인 질감으로 표현하는 주름기법을 하나의텍스타일 소재로 사용하여 주름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헌적 조사방법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이 연구를 위해 주름관련의 국내외 문헌을 통해 조사 하였고 과거와 현재의 주름의 기원을 복식 문화 문헌을 통하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복식에 사용되는 주름의 종류를 조사하고 봉제 테크닉에 의한 방법,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표현한 주름기법, 또한 열 고정 처리로 영구적인 기계주름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여성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주름을 이용한 섬유를 창의적인 발상으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표면 장식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을 조사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주름을 이용한 의상디자인의 경향과 연구자가 적용한 주름 테크닉 방법을 제시하고 의상 디자인 복식 조형에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0C 초 영구적 인 기계 주름 가공법을 최초로 개발한 마리아노 포튜니(Mariano Fortuny). 또 기계주 름으로 유명한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텍스타일 변형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ahinuma)를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하여 섬유디자인 의 흐름을 분석하고 주름을 표현한 섬유 작품과 의상디자인 작품을 조사하였다.

웰빙 산업의 발달로 로하스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합성염료가 아닌 천연염료 염색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며 천연염색을 한 천연소재로 주름기법을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Ⅱ. 본론

A. 주름의 의의

의복은 인체 위에 표현되는 예술로서 우리 생활양식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의상을 디자인하는 의장 활동은 인간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의복의 표면을 장식하는 디 테일 중에 주름은 조형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인체를 보호하고 활동성 있는 기능성 인 면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름은 율동감과 함께 선의 반복에 의한 조형적 특성이 있어서 고대에서부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식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주름은 봉제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주름과 화학적 약품처리의 소재에 의한 주름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봉제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주름은 러플(ruffle), 프릴(frill), 플라운스(flounce),스모킹(smocking), 개더(gathered), 턱(tuck), 그리고 섬유를 신체에 두름으로서 자연 발생 되는 주름은 드레이프성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정 시키기 위해서 봉제 테크닉이 있어야 하므로 핸드 메이드 주름으로 구분하였다. 플리츠의 영구적인 주름, 즉 기계주름과 화학처리로 만들어지는 주름은 패션 변형 소재로 현대에서는 섬유, 열 가공 처리된 그 자체로 의상디자인을 하고 있다.

1. 주름의 종류

a. 개더(gathered)

의복제작에서 쓰는 장식 주름으로 주름을 잡을 부위에 홈질하여 잡아당겨서 작은 주름을 만드는 것이다. 스티치 선에서 실을 잡아당기면 원단의 길이가 줄어들고 스티치 선 아래로는 전체 원단의 길이가 구불거리는 주름으로 나타난다. 맨 윗부분에만 개더하여 주름잡은 원단은 나풀거리는 주름이 아래 자락으로 펴지면서 늘어진다. 양쪽을 개더 처리한 원단은 두 가장자리 사이에 고정되지 않고 흐르는 다양한 주름이만들어 진다. 전체적으로 개더 처리한 원단은 가운데가 부풀어 올라 느슨한 주름이만들어 진다.1) 바느질실은 비단인 경우 가느다란 시침실, 무명이나 모직에는 두꺼운무명실로 하는 것이 좋고 바늘땀은 촘촘하게 하거나 굵게 하거나 파상으로 홈질을 한





다. 재봉틀로 박을 때는 밑실은 윗실보다 조금 굵은 것으로 하고 윗실은 늦추어서 바늘땀을 굵게 하여 밑실을 잡아 당겨 주름을 잡는다. 개더를 잡는 방법에는 손바느질, 재봉틀, 자동기계, 고무줄, 원단을 접어 박아서 생기는 통로. 채널(channel) 이용등 다섯 가지가 있다. 손바느질 개더링은 홈질에 따라 달라진다. 개더링에는 한 쪽끝 개더링이 있고 양 쪽 끝의 개더링, 전체 개더링이 있다.

한 쪽 끝의 개더링은 천의 한쪽 끝에 실로 스티치하거나 고무줄을 이용하거나 채널을 만들어 뭔가를 집어넣어 당기는 동안 작업을 통해 조금 더 작은 치수의 천을 만드는 것이다. 개더 아래쪽으로 여유가 많아진 천이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퍼지면서 나풀거리게 된다.²⁾

양쪽 끝 개더링은 원단의 양쪽 끝에서 스티치한 실을 잡아당기거나 고무줄을 이용하거나 또는 채널 안쪽에 무언가를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주름을 잡음으로서 길이를 줄어들게 만든다. 개더를 잡은 양쪽 끝 사이에 놓이는 원단은 방향성을 갖는다.3)

전체 개더링을 하게 되면 가장자리 전체를 스티치하여 잡아당기거나 채널 안에 고무줄 또는 끈 같은 것을 넣어 당기기 때문에 개더 사이의 원단이 부풀어 올라 원래모양보다 작아진다.4)



¹⁾Colette Wolff (1996),The Art of Manipulating Fabric, 양경희 (2011).패션 섬유 조형 예술, 서울: 에코모 다.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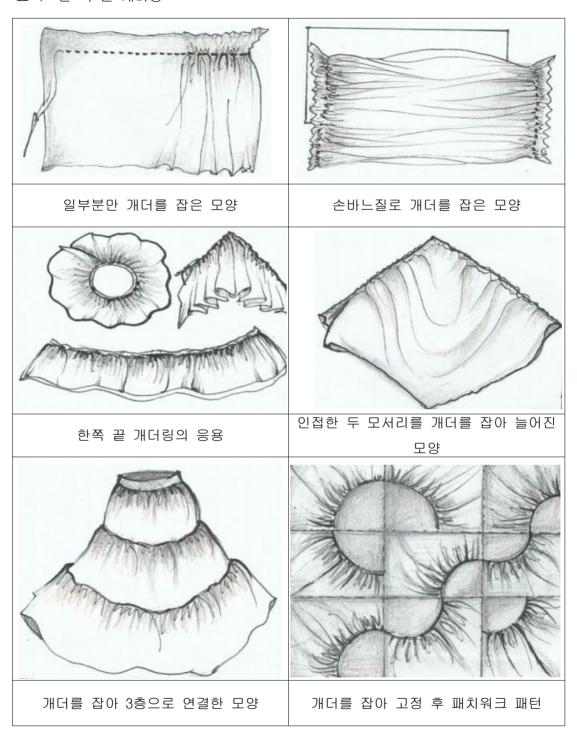
²⁾앞의 책, p.21

³⁾ 앞의 책, p.28

⁴⁾ 앞의 책,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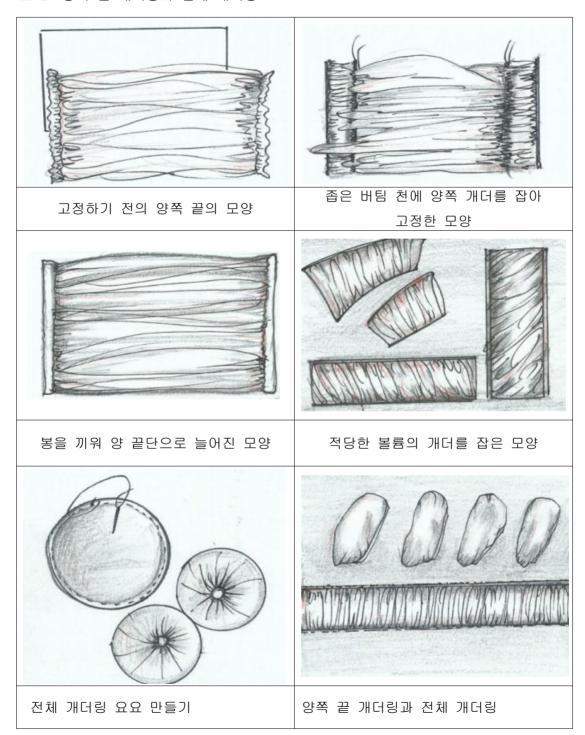
<표 1> 한 쪽 끝 개더링







<표 2> 양쪽 끝 개더링과 전체 개더링





b. 러플(ruffe)

가늘고 긴 원단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길이를 줄어들게 하여 가장자리에 구불거리는 주름을 만드는 것으로 옷 가장자리나 솔기 부분에 레이스나 천을 홈질하거나 주름을 넣거나 박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주름의 러플은 입체감을 더하고 나풀거리는 가장자리로 표면을 장식하는 효과를 낸다. 러플은 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놓인 범위 내에서 좁거나 조금 넓게 작업할 수 있다. 한쪽 끝이나 양쪽 끝에서 나풀거리는 자락을 아래로 늘어지게 하거나 솟게 하거나 옆으로 퍼지게 한다. 러플은 부드러워서 직선, 곡선, 각진 선에 맞출 수 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러플, 서로 분리 되거나가득 차게 작업한 러플, 띄엄띄엄 놓이거나 원단 전체에 작업한 러플 등을 이용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5)

네크라인 선에 이것을 대면 러플 칼라가 된다. 드레스, 블라우스, 아동복 등의 네 크라인과 소맷부리·옷단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나비가 좁은 천이나 레이스,리본 등을 이용하여 가구덮개, 커튼 등에 주름을 잡아 붙여서 단의 처리와 실내 장식을 하 기도 한다.

러플은 개더 처리한 한쪽 끝 러플이 있고 양쪽 끝 러플이 있다. 한쪽 끝 러플은 한쪽 가장자리를 완성치수에 맞게 개더처리하고 평면의 원단과 연결하는 것이다. 반대편 가장자리는 불규칙적이고 구불구불하게 주름이 진다.6) 양쪽 끝 러플은 가운데에 스티치를 주어 개더를 잡아 완성치수에 맞추는 것이고 바탕 천에 부착한 양쪽 끝의러플은 자유롭게 나풀거린다. 플리츠 러플은 규칙적인 주름으로 끝이나 중심에 스티치로 고정하여 작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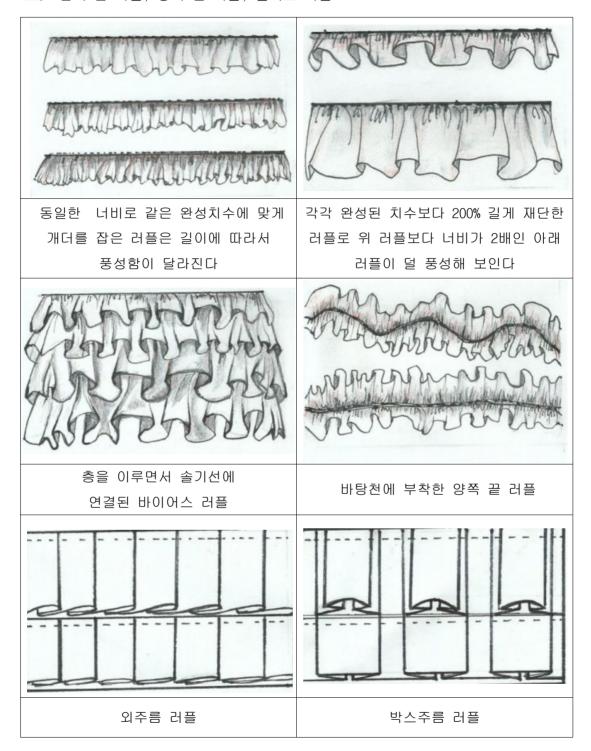


⁵⁾앞의 책, p.57

⁶⁾ 앞의 책, p.65



<표3> 한쪽 끝 러플, 양쪽 끝 러플, 플리츠 러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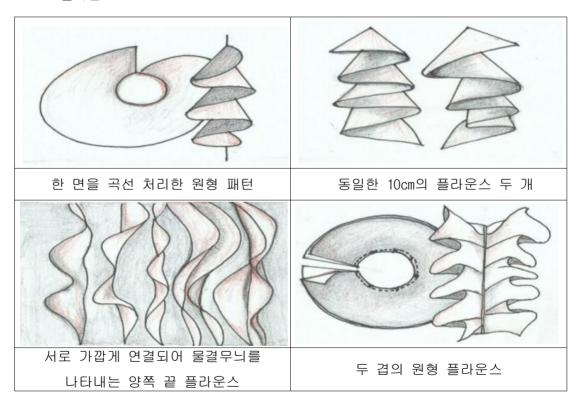




C. 플라운스(flounce)

솔기 선에서부터 점차 플레어(flare)지면서 부풀어 올라 끝자락에서 구불거리는 주름으로 늘어지는 것이다. 7) 중심에 원으로 돌려 패턴을 가위로 자른 다음 절개하여 주름 양을 벌려서 다른 원단의 솔기에 연결하는 것이다. 바깥의 긴 가장자리는 구불구불 주름지면서 흘러내린 것처럼 보인다. 원형의 플라운스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원하는 형태에 따라 패턴을 전개하여 작업을 한다. 절개하여 벌려주는 패턴활용법을 이용해 한 곳에 깊은 주름을 만들거나 여러 곳에 분산된 작은 주름을 만들 수 있고 주름과 주름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 할 수 있다. 원하는 주름의 모양에 따라 절개하여 벌려줄 분량을 결정하는데 많이 벌려 줄수록 주름의 양은 많아진다. 두 겹을 겹치게 할 수도 있고 두 플라운스를 연결하여 양쪽 끝 플라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칼라, 커프스, 드레스, 스커트의 도련 등에 쓰인다.

<표 4> 플라운스



7)앞의 책,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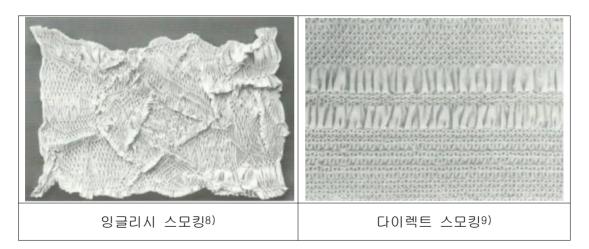
d. 스모킹(smocking)

세밀하게 플리츠처리한 원단의 주름들을 손바느질로 고정하면서 정돈하는 작업이다. 천에 잔주름을 잡고 장식 스티치를 보이게 하여 디자인을 해 나타내는 기법으로 유럽풍 자수나, 자수 천을 봉축(縫縮)하여 올 사이사이로 자수 실을 넣어가며 여러가지 무늬로 여미거나 꿰맨 장식적인 주름을 말한다. 블라우스나 에이프런, 유아복등에 흔히 사용한다. 원래 유럽 농민의 스목(smock; 상의의 일종)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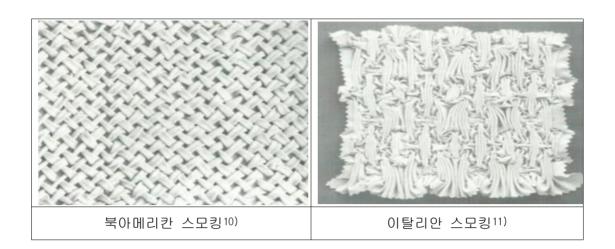
수놓는 방법은 아우트라인스티치, 케이블스티치, 웨이브스티치 등이며, 블라우스, 드레스 등에 응용한다. 색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음영을 넣을 수 있어 입체적이 고, 볼륨이 풍성하게 완성된다. 그러나 스모킹한 원단은 주름 때문에 두꺼워지고 주 름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스모킹에는 잉글리시 스모킹, 다 이렉트 스모킹, 북아메리칸 스모킹, 이탈리안 스모킹이 있다.

잉글리시 스모킹은 스티치 선을 따라 원단을 얕게 주름 잡고 주름잡은 튜브를 조절해 자수로 무늬를 만든다. 북아메리키나 스모킹은 잡아당기는 스티치와 늘어뜨리는 스티치를 번갈아 사용하여 격자무늬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다이렉트 스모킹은 점으로 표시된 격자무늬 패턴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한 번의 스티치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이탈리안 스모킹은 문양이 있고 섬세하게 솟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이루는 직선 스티치에서 주름이 만들어진다.

<표 5> 다양한 스모킹







e. 셔링(shirring)

개더를 잡은 줄 사이에 부드럽게 구불거리는 원단을 만든다. 셔링 잡힌 원단 사이의 스티치 선을 원단의 가장자리와 평행하거나 사선이 되기도 하고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낸다¹²⁾. 셔링은 원단의 크기보다 줄어들게 만든다. 셔링은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으로 박음질한 다음 밑실을 잡아당기어 원하는 양의 셔링을 만든 후 끝에 핀을 꽂고 밑실을 팔자모양으로 고정시킨다.¹³⁾

서링의 양을 조정한 후 윗실과 밑실을 2~3회 묶어 매듭을 만든다. 밑실에 실고무줄을 감아서 박음질하면 일정한 양의 서링이 만들어지며 탄력성이 있어 활동량에 따라 자유롭게 늘어나므로 편리하다.



⁸⁾앞의 책, p.155

⁹⁾앞의 책,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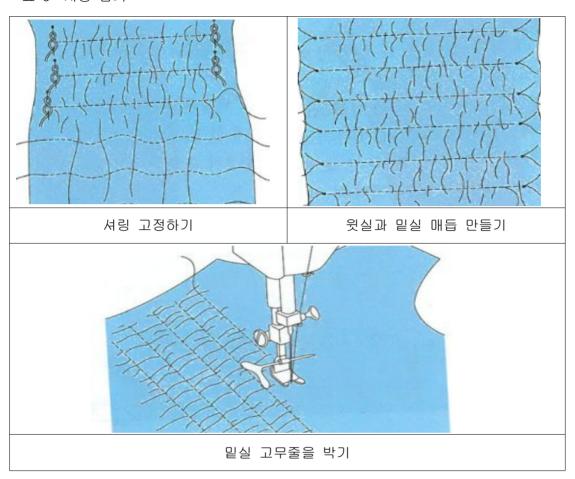
¹⁰⁾앞의 책, p.161

¹¹⁾앞의 책, p.165

¹²⁾앞의 책, p.41

¹³⁾김인화 (2006), 기초재봉실기,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p.94

<표 6> 셔링 잡기14)



f. 프릴(frill)

프릴(frill)은 주름을 잡아 물결 모양으로 만든 옷 가장자리의 장식이다. 잔주름을 잡은 가늘고 긴 장식 천. 의복의 단, 옷깃 언저리, 소맷부리, 기타에 장식 또는 선두르기 천으로 사용한다. 러플보다 나비가 좁으며 한 쪽에 주름을 잡아 의복에 꿰매어달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다. 주로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다. 여성용, 어린아이용 원피스나 블라우스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나 남자용 드레스 셔츠의 가슴장식이나 소매에서도 볼 수 있다.

14)앞의 책, p.94





g. 드레이프(drape)

주름을 드리우거나 느슨한 주름으로 가린다는 뜻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일정하지 않은 주름을 말한다. 주로 여성복의 부드러움이나우아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드레이핑은 재단하지 않은 천을 직접 인체나 인형대(人形臺)에 걸쳐 옷 모양을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이른바 입체재단을 말하는 것으로 파티복이나 무대의상에 많이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상복에도 많이 사용한다.

h. 나이프 플리츠(knife pleats)

플리츠는 원단 가장자리에서 치수에 맞추어 만든 주름이 스티치로 고정된 것이다. 플리츠를 잡기 위해 다리미는 필수이다. 열과 스팀, 압력이 중요한 요소이며 주름을 납작하게 눌러 평평하게 하거나 돌출되게 한다. 일명 외주름이라고도 한다. 사이드 플리츠(side pleats)라고도 하는데 이는 칼같은 한쪽방향의 주름을 말한다.

i. 박스 플리츠(box pleats)

맞주름이라고도 한다. 주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는 플리츠인데 상자 모양 같다고 하여 박스플리츠라고 한다.

j. 아코디언 플리츠(accordion pleats)

위쪽의 주름은 좁고 아래로 넓어지는 주름으로 아코디언 악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행한 주름 사이에 안과 밖으로 균일하게 접혀 돌출한 주름이다.

k. 인버티이드 플리츠(inberted pleats)

박스 플리츠와 반대로 주름을 잡는 것이다. 주름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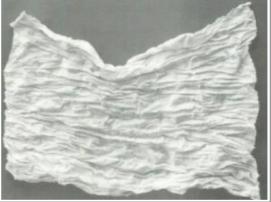
I. 구겨진 플리츠(wrinkled pleating)

길쭉하게 솟은 부분과 파인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주름으로 축축한 원단을 돌돌 뭉치고 단단히 고정한 상태로 건조시켜 만든다. 구겨진 플리츠에는 두 가지 종 류가 있다.

- (1) 긴 빗자루 주름 : 축축한 원단을 개더를 잡아 원통을 감싼 뒤 띠로 말아 마를 때까지 고정한다. 마른 후 주름을 풀면 한 방향으로 구겨진 주름이 나타난다.
- (2) 뒤틀린 주름 : 축축한 원단을 밧줄 모양으로 꼰 후 휘감아 묶어서 전자레인지에 말린다. 주름을 펼치면 여러 방향으로 구겨진 주름이 나타난다.

<표 7> 구겨진 주름의 예시





긴 빗자루 주름을 잡는 방법으로 작업한 불규칙한 주름(왼쪽) 뒤틀린 주름을 잡는 방법으로 작업한 사각형 원단(오른쪽)¹⁵⁾

m. 턱(t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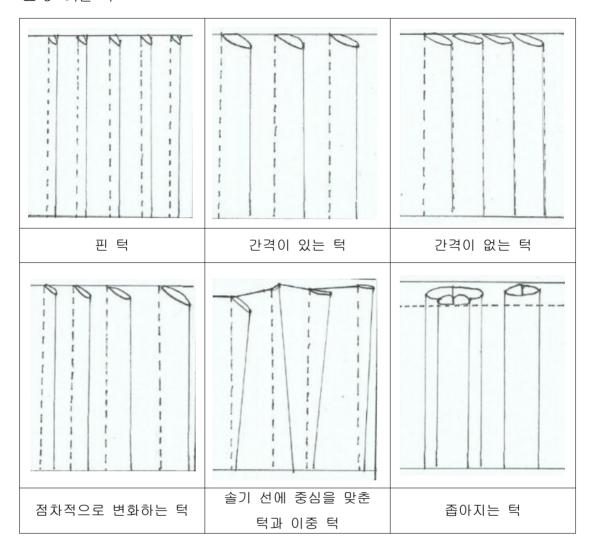
턱은 원단 끝에서 끝까지 박아 주름을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것으로 그 모양은 돌출하게 하거나 낮게 다림질하여 만들기도 한다. 턱의 넓이는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너비를 좁게 하거나 넓게 하여 변화를 주기도 한다. 턱 처리한 원단은 안정적이고 뒷면에나타난 턱의 모양은 솔기처럼 보인다.



¹⁵⁾Colette Wolff (1996), p.136



<표 8> 기본 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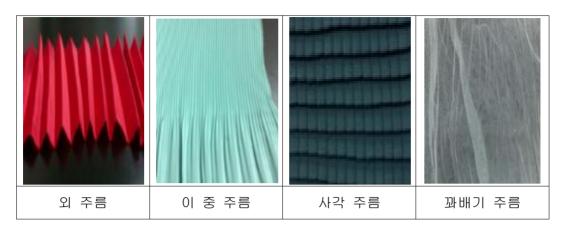
n. 기계주름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프레스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 만든 반영구적인 주름을 말한다. 원단의 다리미 온도보다 높게 하는데 발화점보다 낮게 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주름을 잡는다. 다양한 주름을 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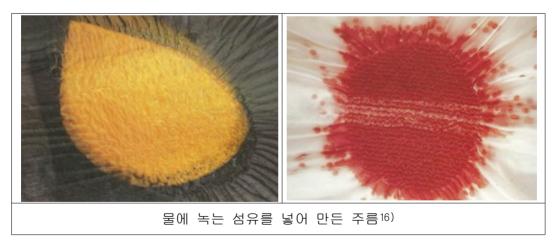
<표 9> 기계주름의 모양



0. 화학적 열처리 주름

열에 반응하는 특수 화학 물질이 처리된 직물을 부착하여 열을 가하면 주름이 형성 된다. 열을 가하면 녹거나 오그라드는 특수 화학물질이 가공된 소재에 직물에 적용하여 장식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표 10> 화학적 열처리 주름의 모양





¹⁶⁾ 사라E 브래독 마리오마호니 (2012), 테크노 텍스타일, 서울: 예경, p.122



2. 주름의 이론적 배경

복식사에서 주름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로 올라간다. 오리냑크(aurignacian)¹⁷⁾기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로인 클로스(loin cloth)¹⁸⁾에서 주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 이러한 주름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지만 이 중에서 가장 두각 되는 것은 이집트와 그리스 시대의 주름이다.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집트는 아열대성기후의 영향으로 허리에 두르는 형태의 의복이 발달했는데점차 복식은 신분의 상징으로서 장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a. 고대 복식(B.C 3000~A.D 500)

(1) 이집트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의 농경 사회로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자연물을 숭상하는 종교의식이 발달하였다. 절대적이며 폐쇄적인 계급사회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복식을 사용하였다. 영혼 불멸 사상에 따라 이집트의 조각이나 벽화, 항아리등에서 세밀하게 주름이 잡힌 의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간단히 걸쳐 입는 로인 클로스를 입었으며 왕은 그 위에 트라이 애귤러 에이프런(triangular apron)를 덧입었다. 차츰 전체에 헐렁하게 둘러 입는 칼라시리스(kalasiris) 형태가 발달하였다. 19)<그림2>

이집트의 주름이 지닌 복식사적 의의는 단순한 형태의 직물을 의복으로 착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접어서 제작한 직선 형태인데 이집트의 복식에서 나타난 주름은 긴 헝겊을 몸에 둘러 감아 입는 방식에서 자연적인 발생으로 시작된 주름을 일컬을 수 있다. 이집트의 시대의 주름은 장식의 의미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얇고 고 운 린넨으로 만든 반투명한 의상을 통해 육체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고 감지했기에 신 왕국 때부터 드레이퍼리(drapery)는 모든 계층에 보급되면서 의상에 대한 미의식 을 높였으리라 생각된다.²⁰⁾



¹⁷⁾상구석기시대(제3구석기시대) 기원전 32000년~26000년 사이에 유럽과 서남아시아에 존재했던 문화.

¹⁸⁾로인은 허리라는 뜻으로 로인클로스는 '허리에 두르다' 라는 뜻이다. 원초적 요의를 가르킨다.

¹⁹⁾ 유승옥, 이은영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p. 106

²⁰⁾정흥숙 (2005),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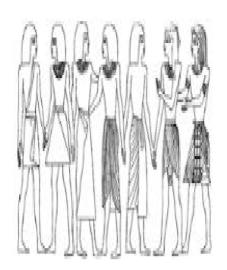
남자들은 기본 의상으로 로인 클로스를 입었고 일종의 롱스커트처럼 발전하여 로브스타일(rode style)인 칼라시리스(kalasiris)를 입었다. 또 킬트(Kilt)라는 스커트가 있었는데 앞 중심에 주름이 많이 잡혀 있었다.<그림3> 왕족 뿐 만 아니라 평민들도 주름 장식된 의복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축제가 있을 때 외출복으로 입었으며 칼라스커트(gala skirt)를 많이 입었다. 칼라스커트는 앞자락 끝이 둥근 곡선형으로 아코디언 같은 핀턱 주름이 잡혀 있다. 방사선 방향으로 이루어져 주름이 많이 잡힌 파뉴(pagne)도 칼라스카트라고 하였다. 여기에 핀턱 주름(pintuck pleats)이 잡혀 있으며 주름이 많이 잡힌 파뉴(pague)는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수직선의 주름으로 권위를 상징하였다. 정밀하게 주름잡은 의상은 특권계층만 부여되는 것으로 주름은 귀족의 상징이었으며 주름의 숫자는 계급을 표시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다고한다.

고대 이집트 주름 제작 기술은 방적기술과 직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마지막 왕국인 제국시대로 갈수록 직물의 소재가 점점 얇아져서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의 주름이 가능하여 졌다. 왕과 왕족의 남자들의 복식에서 쉔토트(Sherndot)²¹⁾라는 것이 있었다. <그림4〉 파뉴 위에 두르는 에이프런형의 장식패널이 있는데 주로 잔주름을 잡은 헝겊에 보석이나 여러 가지 유리가루를 녹여 풀로 붙여서 세공하여 입체감이 나도록 만든 것으로 호화로운 의상에 수평이나 수직으로 정밀한 홈질을 하여 전면에 주름을 잡아 입는 것이다.

이집트 왕족의 주름기술은 손으로 잡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 하였다. 주름을 잡는 방법은 체격이 큰 남자가 두꺼운 판위에 손가락으로 주름을 잡은 얇은 마지를 올리고 그 위에 한 장의 두꺼운 판을 겹쳐 원단을 고정시키고 또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 며칠 동안 걸쳐서 만들고 또 뜨거운 돌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소재가 천연섬유라서 세탁 시 물에 닿으면 주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복하여 주름을 잡아야 하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다. 주름이 잡힌 의복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권이기도 하였다. 이집트 후기(B.C1580~31년)에는 방적 기술의 발달로 의복에 디자인의다양성이 생기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자연스런 드레이프를 살려 창조적이고 섬세한주름의 표현을 정교하게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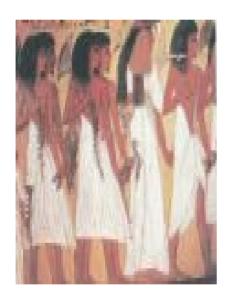
²¹⁾왕족 남자들이 파뉴 위에 두르는 에이프런 장식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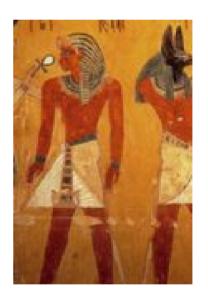
<그림 1> 로인 클로스22)



<그림 2> 쉬스 스커트²³⁾



<그림 3> 칼라시리스와 킬트 스커트²⁴⁾ <그림 4> 쉔토트(Sherndot)²⁵⁾



²²⁾한순자, 서옥경 외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예학사, p.20

²³⁾정흥숙 (2005), p.17

²⁴⁾앞의 책, p.20

²⁵⁾http://enjoypaper.com/bbs/board.php?bo_table=story_02&wr_id=83&sfl=&stx=&sst=wr_hit&sod=asc&s op=and&page=3 (2014.10.18.14:35)

(2) 그리스

그리스의 문화는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화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고 그리스 복식은 드레이퍼리(drapery)형으로 로마로 연결되어진다.26) 그리스 복식은 신분을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스의 주름은 직선적인 감각의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오리엔트(Orient)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화려하고 복잡하게 변화해 간다. 자유로운 정신과 창조적인 예술성은 드레이퍼리형 의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직물의 부드러운 질감을 이용하여 재단이나 봉제를 하지 않고 천을 그대로 몸에 걸치고 고정시켜 끈으로 묶는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보여주듯이 자연스러운 주름은 전체적으로 드레이퍼리하여 세부적인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조화로서의 실루엣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후기에는 주름이 봉제기술에 의한 최초의 주름 제작 시초라고 할수 있다.

그리스 시대에는 얇은 마 소재나 울 소재의 직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흐름이 직물의 외면에 자연스런 주름을 형성한다. 주름이 형성된 원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리스의 건축물에서 알 수가 있다. 그리스 신전은 세로 간격으로주름처럼 조각된 원주가 있다. 파르테논(Parthenon) 신전(B.C447~432)의 원주를 살펴보면 커다랗게 세로로 파여 있다.<그림5> 이오니아 원주에도 세로로 파여 있는데 이오니아 키톤에 섬세한 주름이 잡혀있다.<그림6>

주름의 생명은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몸의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며 주름은 직물을 통하여 유동성 있는 리듬감을 형성한다.

키톤은 알카익 시대(B.C.1200~480년)에 남녀가 입기 시작한 기본적인 의상으로 착용자의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길이에 약 45cm를 더한 길이의 직사각형의 천을 반 접어 두르고 양쪽 어깨에 핀을 꼽아 케이프처럼 늘어지게 만드는데 여기에 허리에 띠를 매고 허리띠가 보이지 않도록 상체의 옷을 잡아서 내려놓아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으로 불라우징(blousing)되어 블라우스를 입은 효과를 복잡하게 연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을 입는 것을 좋아하였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이오닉 키톤의 주름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있으며 신체와 의복의 조화로 매우아름다운 표현의 극치를 볼 수 있다.

히마티온(himation)은 그리스어 중 의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특수복, 망토





(manteau)의 의미로 쓰였다. 그리스의 상류층과 지식층에서 즐겨 사용한 히마티온은 직사각형의 한 장의 천을 몸에 둘러 입는 겉옷으로 외출 시에 많이 입었다. 망토 같은 옷으로 철학자들은 청빈함을 나타낼 때는 속옷을 입지 않고 히마티온만 둘렀다. 때로는 밤에 이불로도 사용했다. 키톤은 주로 흰색인데 비해 히마티온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고 흰색일 때는 가장자리에 무늬를 넣고 수를 놓아 귀족적인 의상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드레이퍼리형 주름 복식의 대표적인 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전체를 곡선적인 주름으로 뒤덮어 자신의 지위을 나타내었다.

클라미스(chlamys)는 히마티온의 변형으로 망토를 의미하며 여자들이 여행 시에 추위를 막아 주기도 하였는데 잠잘 때 담요로도 사용되었다.<그림7> 사각형의 천과 사다리꼴의 천을 왼쪽 어깨에 덮고 오른쪽 어깨에 파불라로 고정하여 오른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성과 기능성을 주었다. 선명한 색상의 직물에 수를 놓기도했으며 화려한 장식의 주어 얇은 소재의 직물로 보다 정교한 주름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제작되었다.<그림8>



<그림 5>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27)



<그림 6> 이오닉 키톤28)



²⁷⁾http://terms.naver.com/entry.nhn?docld=970772&cid=47318&categoryld=47318 (2014.10.19.14:30) 28)정흥숙 (2005), P.65







<그림 8> 클라미스30)

(3) 로마

로마의 복식으로는 남성들은 튜니카(tunica) 위에 토가(toga)를 입고 여성들은 스톨라(stola) 위에 팔라(palla)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그림9>,<그림12> 토가는 로마의 대표적인 의복이며 그리스의 히마티온의 변형으로 직사각형, 반원형, 타원형의 천을 몸에 둘렀는데 입는 방식은 다르나 왼쪽 어깨에 둘러 오른팔의 활동이 자유로웠다.<그림10> 스톨라는 여자들이 착용한 튜닉으로 다양한 형태의 길이의 소매가 부착되었다.<그림11>

로마의 미적 특징을 건축에서 아치와 돔 형식을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시켰던 로마인들은 복식에서도 반원형의 곡선 감각을 살렸다. 모직물은 물론 동양의 실크와 교직물의 직물이 복식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염료의 개발로 다채로운 색상이 선보이게 되었다.³¹⁾ 드레이퍼리형 복식에서는 그리스처럼 섬세한 아름다움은 줄어들었지만 로마다운 박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장대하고 화려한 미를 찾아 볼 수 있다.



²⁹⁾앞의 책, p.67

³⁰⁾ 앞의 책,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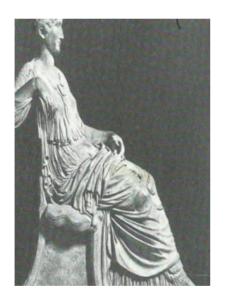
³¹⁾유승옥, 이은영 (1996). p.110



<그림 9> 튜니카³²⁾



<그림 10> 토가33)



<그림 11> 스톨라 34)



<그림 12> 스톨라 위에 입은 팔라

³²⁾http://blog.naver.com/horong95?Redirect=Log&logNo=130029812831 (2014.10.18.18:20)

³³⁾정흥숙 (2005), P.97

³⁴⁾앞의 책, p.92



b. 중세복식(5 ~ 15C)

중세는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476년)후반부터 15세기(1453년) 르네상스 이전까지 약 100년간을 중세라고 한다. 중세유럽은 동로마 제국과 서유럽으로 구분된다. 중세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물들이 고전 고대와 그들의 시대 사이에 끼여 있는 암흑과 야만의 중간 시대라는 뜻이다.35)

(1) 비잔틴

B.C 330년 중세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주축이 되어 교회에 의한 문화와 기술의 발달 이 이루어 졌는데 당시 복식은 종교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비잔티움을 수도로 한 동로마는 비잔틴이라고 하며 비잔틴 복식은 서유럽의 로마네스크의 양식과 고딕 양식 에 영향을 미쳤다. 복식 양식은 고대의 의복형태를 벗어난 몸의 곡선에 맞게 재단하 는 방법이 고안되었고 직선재단에서 곡선재단으로 변화하는 시대였다.36) 복식의 유형으로는 활동하기 편한 바지형태의 튜닉이 기본형으로 여자들도 튜닉 (tunic)을 입고 망토를 걸쳤는데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주름이 풍성하였다.<그림13> 튜닉은 착용자의 지위에 따라 평범한 모직물에서 질이 좋은 실크에 이르기까지 그 종 류가 다양하였는데 상류층은 장식이 많았고 소매에도 변화가 많았다. 반소매, 또는 긴 소매에 팔꿈치 아래로 넓어지는 형태도 있었으며 손목으로 갈수록 좁아지기도 하 고 스커트는 아랫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주름이 풍성한 시대였다. 비잔틴의 복식의 기본은 튜닉. 달마티카(dalmatica)나 팔루다멘튬(paludamentum)을 입었는데 팔루다멘 튬은 후에 황제, 황후 등에 국한 되었고 평민들은 팔라와 팔리움(pullium)을 입었 다.<그림15> 달마티카는 옷감 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었고 소매에 자수가 발달하였으며 군복 속에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 입체구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단추. 끈 여미는 방법. 칼자국의 슬래쉬(slash). 전리품 간수용 주머니 등 세부 장식이 발

중세 서유럽 복식은 십자군 원정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데 동방문물을 접촉하여 정신적, 문화적 교류로 인한 복식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었

달하였다.<그림14>



³⁵⁾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46

³⁶⁾ 앞의 책, p.52



다. 십자군 원정의 결과 학문, 예술, 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견직물, 모직물 등의 직물공업이 발달하였다. 건축양식의 표면적인 외관이 복식에 영향이 미쳐의상은 길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나타났고 구두나 모자 소매, 옷단이 톱니 모양으로 되었다.

우플랑드(houpplande)는 14세기 과장된 의복의 형태로 1370년경부터 상류층에 유행하게 되었다. 풍성한 품에 귀밑까지 올라오는 칼라와 소매에 아래로 기다랗게 늘어진 주름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그림16> 허리에 벨트를 매어 주름을 강조하고 소매는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었으며 부리는 잎사귀, 톱니, 성곽, 꽃 모양 등으로 매우 장식적이었다. 남자 옷의 길이는 종아리 길이이고 여자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길이였다.



<그림 13> 튜닉과 팔루다멘튬 37)



<그림 14> 달마니카 38)



³⁷⁾정흥숙 (2005), P.112

³⁸⁾http://blog.naver.com/irhaoyvi?Redirect=Log&logNo=20177956347 (2014.10.17.12:50)



<그림 15> 팔루다멘튬과 달마니카를 입은 황제와 성직자 ³⁹⁾



<그림 16> 우플랑드 40)

(2) 로마네스크

비잔틴 문화가 융성하는 동안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유럽은 암흑기(5~9세기)를 거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의 국가로 분리되었다. 비잔틴제국이 멸망을 하는 사이의 유럽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 프랑스 왕국의 건국과 분열 노르만 왕국의 건국, 심자군 원정 등 유럽과 동방과의 교류도 현저히 나타났다.⁴¹⁾ 게르만 요소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계승한 비잔틴 문화와 동방문물이 융합되어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했다. 로마네스크 복식은 전체적으로 헐렁한 형태에서 몸에 맞는 형태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남녀 복식이 분리되지만 여자 복식이남자 복식보다 훨씬 화려하고 복잡하여 졌다. 복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블리오(bliaud)를 입었는데 남자는 무릎까지 여자는 발까지의 길이였다.<그림17>

남자복식은 전체적으로 여유를 주었는데 허리에 벨트를 맴으로써 아름다운 주름이 나타났다.<그림18> 동방으로부터 견직물과 면직물이 직조기술과 함께 수입되었고 염 료를 수입하여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는 등 직물공업의 기반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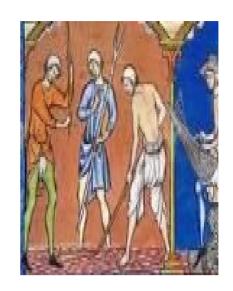


³⁹⁾앞의 책. P.108

⁴⁰⁾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69

⁴¹⁾앞의 책, P.56





<그림 17> 볼리오를 착용한 조각형태 42) <그림 18> 13세기 남자들의 복식형태 43)

(3) 고딕

이 시대는 봉건주의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식과 의례가 중요시 되었는데 복장은 인공적으로 발달되어 갔다. 14세기에는 소매와 몸통이 꽉 낀 상의와 로우 웨이스트 드레스의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13~15세기는 고딕 전성기로 교회건축을 중심으로독특한 양식을 이루었다.44) 부드러운 옷감을 사용하여 남녀 복식의 화려한 장식을 하였다.<그림19〉 꼬뜨(cotte)는 13세기 볼라오를 대체하면서 등장하였고 상류층은 바닥에 끌린 정도의 긴 꼬뜨, 하류층은 짧은 꼬뜨를 착용하였다. 이 옷은 상의는 여유가 있으면서 스커트는 넓어져 자연스럽게 드레이프가 생긴다.<그림20〉 14세기에는 꼬따르디(cotehardie)를 입고 그 위에 쉬르코(surcot)를 입는 것이었다. 이 옷은 어깨넓이 폭의 장방형 천을 반으로 접어 중앙에 머리를 넣을 수 있게 목둘레를 파고 뒤집어써서 입는 방식으로 지금의 망토와 같은 소매 없이 겨드랑이를 꿰매지 않고 벨트를하거나 끈, 버클 등으로 연결하였다.<그림 21>, <그림 22>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복식도 이동성과 활동성 있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



⁴²⁾앞의 책, p.61

⁴³⁾앞의 책, P.62

⁴⁴⁾ 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64



고 직물공업의 전성기를 맞아 벨벳, 브로케이드 등 화려한 직물을 만들고 북방에서 수입한 모피가 외투나 안감 등 장식용으로 애용되었는데 봉제로 인한 장식주름이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망토 45)



<그림 20> 꼬뜨 46)



<그림 21> 꼬따르디 47)



<그림 22> 쉬르코 48)



⁴⁵⁾http://blog.naver.com/redrain66?Redirect=Log&logNo=70037697592 (2014.10.30.16:58) 46)정흥숙 (2005), P.146

⁴⁷⁾http://terms.naver.com/entry.nhn?docld=281387&cid=42822&categoryld=42822 (2014.10.19.14:20) 48)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70



C. 근세복식(16~18C)

(1) 르네상스

르네상스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인간생활의 풍성한 개화기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회의 권위는 약화되고 자적수준의 발달로 인한 인간자아를 발견하면 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고 상공업 발달로 부르주아 상인이 왕과 결탁하 여 재산을 가진 새로운 귀족계급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복식의 형태는 권력과 재산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의상의 양감 및 외양의 화려함에 비중을 두었고 남성들은 남성성을 과장하기위하여 어깨를 강조하고 여성들은 여성성을 강조하기위하여 목을 많이 파서 인체미를 인위적으로 과장하였다. 이 시대에는 직물산업의 발달이 나타났고 그리스와 로마 의상의 본질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경향으로 르네상스의 복식이 표면정신이 되어 인체를 강조하고 어깨와 소매, 가슴을 부풀리고 목선을 강조하는 로브 스타일(robe style)이 유행하였다.<그림23> 먼저 린넨으로 슈미즈를 입고 코르셋과 패티 코트 위에 소매를 강조하고 목선을 가슴 깊이 내려와 데콜레트된 로브를 착용했다.<그림24>

이 시대의 로브는 원형의 러프(Ruff)가 있었는데 러플(ruffle)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플은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특징짓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물결치는 듯한 러프는여려 층이 주름이 리듬감을 표현했다.<그림25> 러플은 물결치는 듯한 주름 칼라를 말하는데 풀을 먹여 정교한 S 형태의 둥글고 높은 칼라가 신속하게 보급되었다. 러프가 가지는 우아한 선과 규칙적인 주름의 리듬이나 섬세한 뉘앙스는 르네상스 사람들이 갖는 미적 감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49) 1580년 시대의 러프는 전성시대로 대형의 러프를 만드는데는 숙련된 기술과 인내가 필요하여 이것을 잘 만드는사람은 많은 보수와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러프를 만드는 철제스틱이 고안되어 대형의 것도 쉽게 주름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남자들도 퍼프, 슬래쉬 등을 이용하여 슬래쉬 사이로 울긋불긋한 천을 보이게 하고 프르푸앵(Pourpoint)이라는 남성의 상의에 러플을 달아 입고 소매에 퍼프 주름을 잡아 강조를 하였다.<그림26> 남녀 복식 모두에서 상의와 하의를 타이트하고 과장된 주름으로 부풀려 볼륨감을 살려줌으로서 대비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과장된 실루엣은



⁴⁹⁾정흥숙 (2005), P.173

외형의 위엄과 조화를 이루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의복이라기보다 인위적인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로브50)



<그림 24> 패티코트51)



<그림 25> 러플칼라52)



<그림 26> 푸르푸앵53)



⁵⁰⁾http://blog.naver.com/irhaoyvi?Redirect=Log&logNo=220011635557 (2014.10.19.16:30)

⁵¹⁾앞의 웹 사이트

⁵²⁾앞의 책, P.174

⁵³⁾앞의 책, p.184



(2) 바로크

네덜란드가 경제적 중심국으로 대두되는 유럽 사회상의 변화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원거리무역을 통해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이 요구 되었다. 검소하고 실용적인 의상이 등장하면서 장식이 현저하게 단순해졌으며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이었다. 실질적인 네덜란드 복식이 우세하기는 했으나 화려한 스페인풍의 복식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다. 17세기 후반 바로크 복식에서는 형식과 사치를 중요시하고 전체적인 조화에 관계없이 장식만 나열한 호화로움을 목적으로 하는 천박한 풍조가 초래되었는데 르네상스 복식은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 반면에 바로크 복식은 전체적인 균형과는 상관없이 장식을 위한 장식에 지나지 않았다. 17세기 초에는 코르셋으로 조이고나무, 상아, 등으로 만든 바스크를 만들어 스토마커 밑에 받쳐 입는 양상이고 중기에는 타이트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그림 27> 17세기 후 에는 바디스는 타이트해지고 스토마커도 길고 다시 뾰쪽한 형태로 돌아온다. 여성복에는 슬래쉬 장식이 있었으며 소매는 풍성하고 팔꿈치까지. 혹은 손목까지 오는 형태였다.<그림28>



<그림 27> 17세기 초기의 복식⁵⁴⁾



<그림 28> 17세기 후기의 복식⁵⁵⁾



⁵⁴⁾앞의 책, p.161 55)앞의 웹사이트, (2014.10.19.16:30)



(3) 로코코

18세기의 예술과 생활에 있어서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하면서 파격적인 것을 요구하 는 복식은 살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며 부인복은 사교장의 주요한 실내장식처럼 화 려하고 주름이 많은 장식을 나타냈다. 가슴을 깊이 파고 허리를 졸라매어 여성적 곡 선을 의식적으로 강조 하였다. 로브의 목 뒤 둘레와 양 어깨로부터 생겨난 주름이 스 커트 자락을 넓고 너울거리게 만들었으며 그 모습은 매우 여성적이어서 널리 환영을 받았다. 남자들의 복식은 조끼와 쥐스토르코르(Justaucorps)를 입었는데 여성복처럼 허리는 들어가고 안단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실루엣이 특징이다.<그림29>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ve a la Francaise)는 의상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로로의 사치스러움으로 로코코 의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 옷은 로브의 변형으로 더욱 복잡하며 상체는 꼭 끼고 스커트는 A형으로 벌어져 주름을 넣어 풍성하게 하였 다.<그림30>,<그림31> 르댕고트 가운(Redingote Cown)은 여성적인 로브와는 대조적으 로 남자복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여자의 코트의 시조가 된다. 로브 볼랑은 루이 14세 때 몽태스판 부인이 임신 중에 입었던 넓은 실내복이 당시 느슨한 생활감각에 맞아 유행하게 되었다.<그림32>



<그림 29> 쥐스토르코르(Justaucorps)⁵⁶⁾ <그림 30> 로브아라 프랑세즈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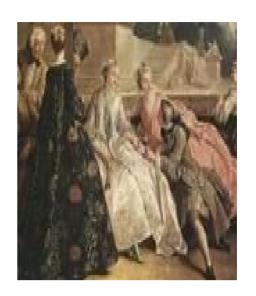




⁵⁶⁾앞의 책, p.256 57)앞의 책, p.238



<그림 31> 파니에를 입은 마리앙투아네트⁵⁸⁾



<그림 32> 르뎅고트가운 ⁵⁹⁾

d. 근대 복식

19세기는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혁명으로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자본 주의는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복식에도 반영되어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사라지고 상업화에 어울리는 기능성의 추구하는 옷에 관심이 모아졌으며 여자복식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

나폴레옹1세 시대(1789~1815년)의 복식 시기는 이제까지의 귀족풍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된 시기였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18세기 말까지 약300년의 귀족문화를 구가한 호화스런 복식은 프랑스 혁명이 이후에 급격히 변화되어 새로운 모드가 생겨났다. 고대 그리스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아 복식에도 그리스의 키톤풍의 다시 나나났다. 여자 복식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천의 그리스 키톤과 같은 스타일의 슈미즈



⁵⁸⁾앞의 책, p.246

⁵⁹⁾앞의 책, p.245

가운(che-mise gown)이 그것이다.<그림33> 이것은 코르셋을 입지 않고 맨살 위에 착용하며 스커트는 안감을 대지 않아 속옷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얇은 천은 부드러운 주름을 우아하게 보여준다. 슈미즈 드레스가 로브로 변형되어 속옷과 같았던 슈미즈드레스가 엠파이어 드레스로 변천되었다. 이 시대의 슈미즈 가운은 허리선이 위로 더 올라가 유방 아래에 머물러 짧은 소매에 퍼프가 생겨 소매는 더욱 좁고 길어졌다. 담백한 의상과 대비되는 다른 색상의 장식용 스커트를 트레인(train)처럼 길게 달아 주었다. <그림34>,<그림35>



<그림 33> 슈미즈 가운 60)



<그림 34> 나폴레옹 1세의 왕비 조세핀의 대관식⁶¹⁾



<그림 35> 1812년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 - 트레인⁶²⁾

60)앞의 책, p.286





(2)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왕정복고시대의 복식(1815~1848년)으로 낭만주의 시대는 귀족중심의 사회가 재개되었으며 복식양식도 귀족풍이 등장 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루어진영국은 기계화가 이루어졌으며 기계화로 인한 직물산업 및 염색공업의 발전은 고급면사를 만드는 자동방적기와 벨벳 직조기계 및 염색공업의 발달을 이루었다. 여자 복식에서 곡선과 부드러운 주름이 환상적으로 장식되었다. 가는 허리와 단에서 넓어지는 스커트 곡선의 실루엣이 강조되자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 어깨선을 점점 넓혀주고 소매를 부풀려 주름을 잡았다.<그림36> 이 시기의 소매의 부풀림과 어깨선이내려온 상태, 약간 짧은 형태의 스커트 등은 전체 모습에 부자연스러움을 주는데 그것은 이 시기의 의상미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을 형성하는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측된다.63)



<그림 36> 1831년 로맨틱 스타일64)



64)앞의 책, p.302

⁶¹⁾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116 62)정흥숙 (2005), p.287 63)앞의 책, p.303



(3)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1848~1870년대로 이 시기의 영국은 식민지 정책에 의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유럽의 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영국복식이 유럽전체를 리드하게 되었다. 남자복식은 기능적이고 근대적인 풍모를 갖추어 현대복식의 원형을 만들었다. 특히 1851년 싱거의 재봉틀의 발명은 패턴과 함께 의복구성 기술에 큰 진전을 가져다 주었으며 합성염료가발명되는 등 자본주의 최전성기로서 복식발전에 따른 여러 기술의 우수성은 이시기의특징이라 할 수 있다.(65) 귀족적인 분위기를 동경하여 낭만주의 의상에 따라 화려한 크리놀린 스타일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나폴레옹 3세의 비인 유제니가 패션의 리더가 되었다.<그림37>66) 스커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러플, 술, 끈, 리본, 자수 등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크리놀린이 패티코트의 효과를 나타내자 패티코트 자체를 크리놀린이라고 하였다.<그림38>,<그림 39> 이때 남자 복식에서 재킷이 등장하였고 가느다란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아멜리아 블루머(Amelis J. Bloomer, 1818~1894년)가 1851년 새로운 의상으로 동방풍의 바지를 발표했다. 불루머는 여권존중의 입장에서 이 바지를 디자인했다.(그림40)⁶⁷⁾ 그러나 이 바지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이 모드를 런던에서 거창하게 발표했다. 지금의 드로오즈 (drawers)⁶⁸⁾와 같이 크리놀린 속에 드로오즈나 판탈롱을 착용하였다.



⁶⁵⁾유승옥, 이은영 (1996).p.123

⁶⁶⁾ 앞의 책, p. 125

⁶⁷⁾정흥숙 (2005).p.322

⁶⁸⁾고쟁이 같은 옷



<그림 37> 나폴레옹 3세의 비 유제니69)



<그림 38> 크리놀린 착용 모습70)





<그림 39> 숄을 두른 크리놀린⁷¹⁾ <그림 40> 1851년 블루머(Amelis)⁷²⁾

69)http://m.blog.daum.net/johnkchung/6823817#.(2014.10.16.12:30)

70)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126

71)정흥숙 (2005), p.316

72)앞의 책, p.322





(4) 버슬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Bustle Style, Art Nouveau Style)

19세기말 복식(1870~1910년)으로 미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제국시대가 전개 되었다. 단순해진 의복과 미싱, 패턴의 개발은 기성복을 가능하게하고 현대 복식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의 사회 진 출은 전체 복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합성섬유와 합성염료의 발견은 직물 의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 왔으며 산업발달로 인한 도시생활이 확대함에 따라서 남성 복. 여성복식도 간소화. 실용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복식은 한 벌의 슈트 (suit)로 단순해졌으며 조끼와 넥타이로 악센트를 주어 편리하게 발전되어 갔다. 오 늘날처럼 테일러드 칼라가 달리고 판탈롱이 완전히 정립되었다. 여자복식에서는 크리 놀린 스타일의 실용화의 경향으로 길이도 짧아지고 여성의 히프를 강조하는 버슬 (Bustle)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아 유연한 곡선 을 강조하는 S-커브(S-curve)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아르 누보스타일은 1980~1910년에 나타났으며 아르 누보(Art Nouveau)란 '새로운 예술'이란 뜻이다. 손으로 만든 수 공예에 가치를 두자는 미술 수공예 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기계 문명이 만개했으나 문명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현세 부정적인 허무주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자연을 대상으로 유기적 생명체를 모티브로 사용하여 상징적인 선을 표현하였다. 아르 누보 복식 스타일은 흘러내리는 곡선감각이 모든 조형분야에 적용되었다. 버슬스타일이 무 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 시대에는 날씬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그림41>,<그림 42> 아우워 글라스 실루엣(1890~1900년)이 유행하면서 심한 곡선을 주어 주름을 잡은 소 매와 플레어로 퍼진 스커트가 창출하였다. 또 이 시대에 투피스 스타일인 테일러드 슈트(tailored suit) 차림이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41> 1870년대 버슬스타일⁷³⁾ <그림 42> 1868년대 버슬스타일⁷⁴⁾



e. 현대 복식

이 시대는(1914~1960년) 아르데코(Art Deco)스타일이 시작되는 시기로 세계대전에 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전쟁에 나간 남성 대신 많은 여성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제복을 착용하게 되었고 전쟁 직후 삶에 대한 열망으 로 휩싸여 사회적인 개혁보다는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풍토로 인해 전쟁 전의 화려한 차림을 동경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밀리터리 룩이 당시의 사회에 널 리 퍼져 유행하였는데 상류층에서는 여성미를 강조한 이브닝 드레스가 다양하게 디자 인 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푸아레 스타일(Poiert style)이 확립된 시기이다. 대표 적 디자이너는 프랑스 출신 폴 푸아레(Paul Poiert,1879~1944)이다. 그는 패티코트에 서 해방된 직선형 라인의 드레스를 제시하였다. 동양풍을 반영한 중국식 스타일의 코 트, 판탈롱, 기모노풍의 튜닉 드레스, 호블 드레스, 터번 등을 선보이기기도 했다. <그림43> 예술분야에서도 초현실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 능적이고 활동적인 의상을 선호하여 스타킹, 벨트, 구두가 패션의 포인트가 되었다.

73) 앞의 책, p.333

74)앞의 책, p.332



20세기 전체에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1883~1971)을 반영한다면 1930년대는 포튜니와 더불어 마들린 비오네(Madeleine Vionnet, 1878~1975)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오네는 우아하게 늘어지는 자연스러운 선을 따라 바이어스식 재단을 고안하였고 카울 네크라인이 나타내는 드레이퍼리한 복식이 이 시대(1930년) 주름의 특징이었다.<그림44>

이 때 이탈리아에서 19세기 말에 활동하던 디자이너 마리아노 포튜니(Mariano Fortuny, 1871~1949)가 플리츠 가공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의 주름은 손바느질에 의한, 또는 봉제에 의한 테크닉이었지만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기계주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포튜니는 샤넬처럼 코르셋을 입던 여자들을 해방시킨 디자이너로 유명하였다. 그는 패션 트랜드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조각을 보고 느낀 강열한 에로티즘을 옷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디자이너와 달리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개성이 넘치는 의복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는 20세기 초 베니스에 나타난 천재화가이며 무대장치, 사진, 실내장식 등 놀랄 정도로 넓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패션분야다. 섬세한 플리츠 드레스 '델포스(Delphos Dress)'는 플리츠의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고 유행의 흐름을 타지 않았다. 플리츠를 가장 현대적인 공법으로 완성했고 그 플리츠로 드레스를 만들어 예술적인 레벨까지 끌어올렸다.

S-커브 실루엣의 전성기 임에도 상이한 델포스는 이사도라 던컨(Isadore Duncan 1877~1927)이 자유롭고 독창적인 춤을 보여주었을 때 새로운 조류로써 과거로부터 탈피를 원하는 새로운 감각에 적절한 것이었다.<그림45> 그동안 허리를 강조한 코르셋 의상에서 발레를 통한 동양풍의 의상은 아르데코의 오리엔탈리즘적 성격으로 일본 취향에서 온 것이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어 소비자 중심주의 사회가도래되면서 영구적인 가공법을 이용한 주름은 획기적인 발달로 이어졌다. 현대적인 공법으로 완성되어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온 기계 주름으로 드레스를 만들어진 포튜니의 드레스는 서구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포튜니의 플리츠 의상은 유행에 휘말려 사라져 간 옷이 아닌, 예술과 같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옷이 되었다.<그림46> 인체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비형식적인 드레이퍼리와 불규칙한 주름, 그리고 소재의 질감 표현에 중점을 두어 원주형의 여유 있는 의상 스타일을 창작하였다. 델포스는 처음에는 특정한 엘리트에게만 애호되다가 20년대에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다. 주름옷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현대에 와서 활성기를 맞는다. 주름옷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1938.4.22~)이다. 그는 의복구성의 입체화를 시도한디자이너다. 1960년대에 그의 디자인이 외국에 소개되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의 조형감을 표현한 그의 플리츠는 주름을 잡고,말아 올리고, 접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그는 폴리에스테르를 플리츠 가공하여 80년대부터 새로운 조형적인 질감을 표현해왔으며 아름답고 실용적이며누구나 입을 수 있는 독창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연구하였다.열처리를 통한 주름작업, 솔기를 꿰메지 않고 봉합하는 열 재단, 거의 성형에 가까운가공기술을 사용한다.75)

현대복식에서 이세이 미야케의 독특한 스타일은 재단과 재료에 멋을 부린 결과로 유럽인들에게 헐렁한 형태, 겹쳐서 입는 스타일, 불균형적이고 복잡한 주름장식이 달린 의상에 익숙해지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 미야케의 독특한 스타일은 재단과 재료에 멋을 부려 패션을 예술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패션의 기능과 미학에 충실하면서 의복생산에 현대적 방식에 활기를 가져왔다. 그의 옷은 미래적이면서도 과거의세계패션과 텍스타일 문화의 전통을 버리지는 않는다. 그의 디자인 철학이 구체화된 '플리츠 플리즈'(pleats please) 컬렉션은 최신의 소재를 사용하여 얼마나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표현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야케의 과거의 주름 표현의 경향은 인체의 선을 이용한 강조법을 사용한 주름이었으나 신소재 개발로 인한 가공 기술의 발전에 의한 주름소재가 개발되면서 그 경향이 바뀌고 있다. 그의 특허품인 옷의 주름 공정을 살펴보면, 옷은 재단된 다음 치수보다 크게 평면 상태로 바느질하여기계 총 사이에 끼여 제 크기로 줄어들도록 만든다.

직물의 형상기억력과 반응하여 영구적인 주름이 잡힌 옷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의 주름은 의복의 부분적인 디테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복식에서 하나의 큰 의미와 공간감각을 지니며 움직임에 따라 인체를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하고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작품에서 동양적인 경향, 즉 기모노의 평면적이며 기하학적인 선에서 모티브를 찾아내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중심개념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형태를 착안하였다. 주름의 기능성, 활동성, 율동성, 장식성 등은 그의 작품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형상과 편안함을 강조해 내었으며 입체적인 질감을 통해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⁷⁵⁾ 사라E 브래독 마리오마호니 (2012),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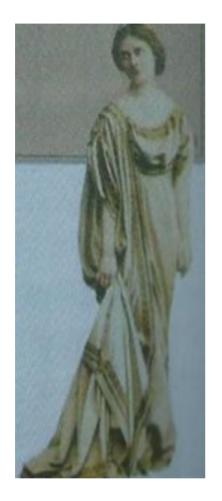


<그림 43> 푸아레의 기모노코트와 호블드레스⁷⁶⁾



<그림 44> 비오네의 바이어스식 재단 드레스⁷⁷⁾

⁷⁶⁾정흥숙 (2005), p.360 77)한순자, 서옥경 외 (2001), p.146



<그림 **45>** 이사도라 덩컨의 무대의상⁷⁸⁾



<그림 46> 포튜니의 델포스⁷⁹⁾

⁷⁸⁾김은하 (2012), 클래시시즘패션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p.124 79)앞의 책, p.124



<표 11> 주름 디테일 표현의 특성

| 시대 | 시대별 주름 디테일 표현 특성 | 공통점 |
|-----------------|---|---|
| 고대 그리스 로마 | 전체적인 비율을 중시하고 조화 중시자연스런 다양한 주름 착장시도자연스런 복식미 추구 | · 자연주의 경향 · 드레이프 사용 |
| 중세 로마네스크 | 그리스, 로마 스타일 계승흐르는 자연스러운 드레이프 표현자연스러운 복식 표현 | · 자연주의 경향 · 드레이프 사용 |
| 근세 르네상스 | 그리스 사상의 모방, 인체미 표현 풍성한 개화기로 우아한 복식표현 자연주의적 소재 복식에 사용 봉제 테크닉을 이용한 주름, 러플 등을 활용, 슬래쉬 등장 | · 자연주의 경향 · 다양한 주름 표현 |
| 근대 | 고대·그리스의 동경에 의한 고전 스타일 재봉틀 도입 드레이프 표현으로 인체미 표현 자연주의, 인위적인 복식 지양 방적기, 염색공업의 발달 | 자연주의 경향다양한 주름 표현복고주의 경향로맨틱 스타일 |
| 현대 | 자연의 회귀, 편안한 스타일추구주름표현의 다양화, 기계주름 도입창의적 표현시도 | 복고주의자연주의 경향다양한 주름 기법개발,기계도입 |





B. 천연염색

최근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염재가 지닌 고유의 아름다운 색상 뿐 만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항균, 항알러지성, 소취성 등 다기능을 갖고 있는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염색은 천연자원인 식물, 동물 및 광물을 이용하여 직물이나 실에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염색을 한 것을 말한다. 사용하는 염재는 대부분 식물이다. 식물의 잎이나 뿌리, 열매, 수피, 꽃 등은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이 천연염색의 대명사로 불리어 지고 있다.

천연염색에 대한 기원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인류 문명과 더불어 시작되어 자연 의 색채를 의복에 옮기고 싶은 충동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천연염색은 1856년 영국의 화학자 퍼킨(Willian Henry Perkin)이 우연히 적자색의 염기성염료를 처음 발견한 이후 합성염료의 발전 및 대량생산으로 거의 소멸 되었으나 산업발달에 의한 부작용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회귀로 천연염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천연염색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색상이 은은하고 아름다우며 독자적인 색의 창출로 인해 천연염색에 대한 비중 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자연에서 대부분 얻어지는 친환경적 소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천연염색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천연 염색은 염재가 대부분 한약재류이고 쪽이나 황토과 같은 기능성을 가진 염재는 친환 경적인 자연의 소재이어서 고부가가치 생물 산업으로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천연염료는 모든 식물마다 다양한 색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주변의 식물들 은 대부분 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천연염색은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염색방법 과 매염제의 첨가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염색 견뢰도가 낮고 동 일한 색상을 내기 어려워 대량생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80) 하지만 환경오염이 적고 변색이 되어도 색상이 은은하게 살아있고 항균성, 소취성, 항알러지 등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린 고소득 문화 상품 개 발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연염색은 또한 어떤 색상과도 잘 어울려 의류 직물산업에서도 새로운 소재로 많이 출시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고기능성 때문에 그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의상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에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80)김성현, 서윤종 (2004), 천연염색, 서울: 한출판, p.12





1. 천연염료의 종류

염료는 식물성 염료, 동물성 염료, 광물성 염료로 분류되어 진다.

식물성염료는 자연의 식물에서 얻어지는 염료이며 동물성염료는 벌레나 벌레집, 동물성 원료에서 얻는 것으로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코치닐, 붉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집의 오배자와 열대지방의 조개류인 패자 등이 있다. 광물성염료는 흙이나 암석에서 원료를 얻는 것으로 황토나 숯, 재, 먹 등이 이에 속한다.

<표 12 > 염료식물에 따른 천연염료의 분류

| 염료분류 | 염료 종류 | |
|------|------------------------------------|--|
| 식물성 | 소목, 괴화, 황벽, 울금, 황금, 황련, 치자, 홍화, 쪽, | |
| | 오리나무, 양파, 포도, 쑥, 율피, 메리골드, 석류 등 | |
| 동물성 | 오배자, 코치닐(연지충), 락, | |
| |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 조개 등 | |
| 광물성 | 황토, 적토, 흑토, 진흙, 숯, 크롬黃, | |
| | 크롬오렌지, 프로시안 靑 등 | |

2. 천연 염색 방법

염색을 하려면 염색을 하려는 원단을 정련을 해야 한다. 정련은 천연 불순물뿐만 아니라 방적, 제직 등의 조작에서 유지류나 풀감이 들어 있어 염색을 할 때에 불순물을 잘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정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면직물의 경우 면직물 100배의 양의 0.5% 가성소다 용액에 넣고 15분 동안 끓인 후 60~70℃의 물속에 10분동안 2회 수세하고 다시 물로 씻어 건조 하면 된다. 양모의 경우 양모를 100배의 양의 0.5% 탄산소다 용액 및 0.3% 비이온 계면 활성제 수용액에 넣고 60~70℃에서 액을흔들어 가면서 15분 동안 처리한 후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한다. 견직물은 피브로인과 세리신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질인 세리신을 제거해야 염색이 잘 된다. 견직물은일반적으로 풀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풀빼기를 한 후에 정면을 한다.





a. 염액추출

염료식물의 추출은 용기에 염재와 물을 넣고 강한 불로 끓을 때 까지 가열한 후약한 불로 종류에 따라서 20분~4시간 동안 가열하여 고운체로 걸러 1차 염액을 만든다. 1차 염액이 만들어 지면 체에 남은 염재를 1차 추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 추출하면 2차 염액이 얻어진다. 물은 염재 및 색소의 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염재의 양에 1~2배를 첨가하면 된다. 염재의 추출은 염재에 따라 다르나 줄기, 잎, 꽃 등은 2~3회 정도, 목재 및 나무껍질은 5~8회 정도, 나무뿌리는 8~9회 정도 추출하면 색소는 거의 빠져 나온다.

b. 매염법

매염이란 염료만으로 섬유에 염착이 안 될 경우, 염색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기위해 매염제를 넣어 염색하는 것이다. 매염법에는 4가지가 있다. 무매염법, 선매염, 동시매염, 후매염이 있다.

<표 13> 매염처리의 4가지 방법

| 종 류 | 방 법 | |
|-------------|--|--|
| 무매염 | 매염제 없이 섬유에 염색하는 방법으로 타닌 성분이 많은 경우 채택. 염색-수세-건조-세정(쇼핑)-건조-제품 | |
| 선매염 | 매염제를 미리 섬유에 흡착시켜서 염료를 붙이는 방법 매염-수세-건조-염색-수세-세정(쇼핑)-수세-건조-제품 | |
| 중매염 (동시) | 염료에 매염제를 동시에 섞어서 염색하는 방법 매염염색-수세-건조-세정(쇼핑)-수세-건조-제품 | |
| 후매염 | 섬유에 염료를 흡착시킨 후 매염제로 발색을하는 방법 염색-수세-건조-매염-수세-세정(쇼핑)-수세-건조-제품 | |





c. 천연매염제를 만드는 방법

매염제는 색의 발색을 돕고 견뢰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천연매염제는 철장, 동장, 잿물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초산을 넣어 만든 철장과 동장, 또 콩대, 명아주, 쑥, 뽕나무 등을 태운 잿물, 감을 식초로 하여 만든 감식초 등이 주로 사용된다⁸¹⁾. 백반은 화학매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의약품으로서 인체에 무해하므로 천연매염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직접 만든 천연매염제를 사용하면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1) 철장액을 만드는 방법

플라스틱용기에 녹슨 철 또는 고철 1kg을 넣고 물 1L 식초1L를 붓고 한 달 가까이숙성시킨다. 한 달 후에 윗물을 무명천이나 망사체로 걸러내어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2) 동장액을 만드는 방법

섬유 100g을 동판 1kg을 준비하여 잘게 자른다. 여기에 식초 1L를 넣고 10분간 끓여서 한 달 가까이 그대로 두면서 가끔 저어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옅은 청록색으로 변한다. 윗물을 망사체로 걸러낸다. 걸러낸 용액을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잿물 만드는 방법

식물의 잎, 가지, 볏짚 등을 태워 불기운이 약간 남아 있는 재를 만든다. 재 에 약 10배의 물을 붓고 24시간 방치 하고 나서 윗물을 무명천이나 망사체로 걸러낸다. 걸러낸 잿물은 오래 보관할 수 없어 사용할 분량만큼 만들어 사용한다. 번거로워 탄산칼륨을 쓰기도 한다.



⁸¹⁾김성현, 서윤종 (2004), p.31

d. 염색 재료별 염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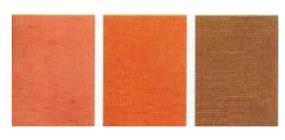
(1) 감

감은 낙엽. 활엽교목의 열매로서 탄닌(tannin)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감의 채취 시기는 7월말~10월초까지 좋고 감이 붉어지기 직전에 이용해야 한다. 미숙열매즙액이 방부제 역할을 하여 땀이나 물에 쉽게 썩거나 상하지 않아 통기성이 좋고 견고하여 여름철 작업복으로 제주도에서 주로 이용하였다. 쉽게 오염이 타지 않아 자주 세탁을하지 않아서 편리하며 까슬까슬하여 오물이 잘 붙지도 않고 잘 떨어진다. 색소의 주성분은 축합형 타닌으로 염색 전 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철제 도구를 피하도록 한다. 타닌은 건조시간에 따라 공기 중에서 산화하여 갈색으로 변하므로 건조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명반은 황갈색 그리고 철은 흑갈색으로 발색이 된다.

<감물 염색 순서 >

- ① 땡감을 채취하여 감꼭지를 오려낸다.
- ② 오려낸 감을 절구에 곱게 찧거나 믹서기에 간다. 발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물 5L에 소금 약 20g을 넣는다.
- ③ 갈아진 감물 즙에 물을 1:1로 붓고 잘 주물러 망에 넣고 짜서 감물 염액을 만든 다. 냉장고에 보관하여 발효시키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 ④ 준비한 원단에 감물 염액을 적신 후 가볍게 짜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린다.
- ⑤ 철매염시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알칼리를 가하면 브라운 톤으로 색이 변한다.
- ⑥ 문양을 햇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후 다양한 염료로 여러 번 염색한다.





<그림 47> 감나무와 감 염색물



(2) 쪽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인 쪽은 생잎의 즙액에 직접 염색하는 생잎 염색, 발효 염색 등이 있다. 쪽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자연환원제를 사용하며 냉염색, 가온염색, 화학발효 등의 발효법이 있다. 염색과정이 복잡하고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쪽물의 양이적기 때문에 전통적인 쪽 염색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쪽잎에는 인디칸⁸²⁾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어, 이것이 발효되어 푸른색 색소인 인디고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쪽색은 흔히 남색(藍色) 또는 감색(紺色)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청색계통을 '쪽빛'이라는 이름으로 통용한다.

<발효 쪽(니람)제조 >

- ① 항아리를 햇볕에 놓고 베어온 쪽 풀을 꼭꼭 눌러 담은 후 돌로 눌러놓은 다음 물을 채운다.
- ② 30℃ 기준 24~30시간 후 초록빛 색이 우러나면 쪽 대와 쪽잎 모두 체로 걸러낸다. 진한 녹색의 액이 되면 쪽물150~180L에 석회1.5~2kg의 비율로 넣고 상하로 강하게 저 어 주면 물색이 황토색에서 녹색으로, 하늘색으로, 남색으로 변해간다.
- ③ 짙은 남색에서 다시 보라색이 되면 거품기가 없어지고 밑 물색이 진해지면 젓기를 멈춘 후 하루가 지나면 윗물을 버리고 남색 앙금을 얻는다. 이것이 진흙같은 니람으로 보관도 가능하다.

<니람 염색 순서>

- ① 니람을 물에 풀고 잿물이나 탄산칼륨으로 PH를 맞추어 환원시켜서 염색하고 공기 중에서 산화한다. 반복 염색하면 짙은 청색으로 염색 할 수 있으며, 쪽은 맑은 날 염 색하여 곧바로 건조시켜야 아름다운 색이 얻어진다.
- ② 건조 후에는 강 알칼리상태의 염색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담구 어 헹구거나 흐르는 물에 오랜 시간동안 담가두거나 하여 여분의 남색과 잿물 기를 제거한 후 건조시키고 아세트산(5~10%)액에 담가 중성이 되게 하면 색상이 선명해진 다.

82)인독실 : 인디칸(indican)의 가수 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결정질 화합물







<그림 48> 쪽 풀과 쪽 염색물

(3) 황벽

황색계 식물성 염료의 하나이다. 황목이라고도 불린다. 수피의 안쪽은 황색이며 황 벽의 쓴 맛은 벌레가 싫어하므로 방충용으로도 쓰인다.

황벽은 염재이외에 약용으로 쓴다.포도상구균, 폐렴상구균, 결핵균에 대한 발육저지 작용이 있다. 방충성이 있어 한지를 염색하여 서책을 만드는데 이용해 왔다.83)

<황벽 염색 순서>

- ① 오배자로 선 매염 한다
- ② 황벽 600g을 3차에 걸쳐 추출한다.
- ③ 염 액에 원단이 나오지 않도록 30분 동안 주물러 염색한다. 매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크에는 염색이 잘된다. 면섬유에는 명반을 넣어 동시매염을 해도 좋다.
- ④ 수세 후 원하는 색이 나올 때 까지 반복염색을 한다.
- ⑤ 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세하고 그늘에 말린다.
- ⑥ 매염 시 색상의 변화는 별로 없지만 견뢰도는 향상된다.





<그림 49> 황벽과 황벽 염색물



⁸³⁾송화순 (2004).아름다운 우리의 색 천연염색, 서울: 숙명여자대학출판부, p.103

(4) 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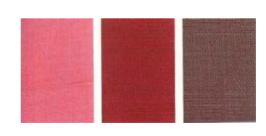
락(lac)은 락충의 분비물에서 수지 성분을 제거하여 붉은 색소만을 고동도로 정제한 것이다. 산지에서는 산란기에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알 뭉치를 꺾어서 건조시킨다. 생으로 달여서 염색하면 색이 더 곱다.

요즘 시중에 분말로 된 락이 나와 있다. 이 분말 락을 물 18L에 약 100g을 넣고 풀어 놓는다. 불에 올려 30분 정도 끓인 다음 1~2일 정도 방치했다가 염색할 때 다시온도를 높여 사용한다. Ph의 의존성이 높아서 산이나 알칼리의 첨가에 의해 색상이변화되는 현상이 있다. 단백질 섬유에 염색이 잘 된다

<락 염색 순서>

- ① 염색하기 전에 직물을 선매염을 하는데 물에 각각의 매염제(AI, Cu, Fe)를 넣고 미지근한 온도에서 30~40분 간 선매염을 하는데 매염제의 농도는 2~4%로 맞춘다.
- ② 준비된 염료에 수산화나트륨(NaOH)과 초산(식초)을 이용하여 Ph4, Ph7, Ph10으로 염액의 농도를 맞춘다.(보라색을 원할 때에는 알칼리화하고 붉은색을 원할 때에는 산 성화한다)
- ③ 선매염한 원단을 젖은 채로 펴서 염액에 넣은 후 70-80℃에서 30~40분간 골고루 저어 주며 염색한다.
- ④ 수세한 후에 알칼리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산를 떨어뜨려 헹구어 중성으로 만들면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0> 락 충과 락 염색물





(5) 치자

치자는 황색계 염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천연염재이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늘 푸른 작은 키나무이다. 꽃은 독특한 향기가 짙게 난다. 꽃은 흰색으로 6~7월에 피며 황갈색 열매부분을 염재로 사용한다⁸⁴⁾. 색소의 주성분은 크로신(crocin)이다. 염재 이 외에 약용, 식용으로 쓰인다. 염색 시 항균성이 있으며 붉은 색에 가까운 노랑색 을 띤다. 견뢰도는 약하지만 소목염료와 복합하여 사용하면 오렌지계열의 색상을 얻 을 수 있다.

<치자 염색 순서>

- ① 치자 100g을 물 2,000ml에 넣고 50~60℃에서 20~30분 추출한다.
- ② 염액을 진하게 추출한다. 염액이 중성(Ph7)일 때 추출효과가 가장 우수하다.
- ③ 반복하여 2회째 염액을 추출하여도 염액이 많이 나온다.
- ④ 철매염시 겨자 빛이 도는 노랑색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1> 치자열매와 치자 염색물

(6) 소목

소목은 콩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소방, 소방목, 홍목, 적목이라고도 불리며 원산지는 동인도, 말레이반도이며 온대지방에서 생육하고 있다. 심재에 색소가 있으며 물로 추출하면 황홍색, 암모니아수, 초산 등 에 추출하면 적자색, 염산에 의해서는

84)이종남 (2010),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천연염색, 서울: 현암사, p.413



갈색으로 변한다. 색소의 주성분은 밴조피란(benzopyrane)계 색소인 브라질레인 (brazilein)이다. 염재 이외에 약용으로 설사, 구토, 이질 및 고혈압에 대한 효과와 향균, 소취성이 있다고 한다. 소목은 Ph에 의해서 색상이 다르다, 산성으로 갈수록황색, 알칼리에서는 붉은 색이 퇴색한 듯한 보라계열의 색상이 나온다. 견뢰도가 좋지는 않으나 반복염색으로 진한 염색을 얻을 수 있다⁸⁵⁾. 소목 염색한 천에 치자 염색할 때 쓰는 명반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참 좋다. 명반이나 알루미늄은 두 염색에서 같이 쓰이는 매염제이기 때문이다. 두 색의 결합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주황색을 얻을 수 있다. 쪽 염색 한 천에 소목 염을 하면 꽃자주색을 얻을 수 있다.

<소목 염색 순서>

- ① 준비된 염액에 원단을 담글 때는 천이 염액에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쓴다.
- ② 염액의 온도는 60°C 정도로 맞춘다. 여기에 원단을 넣어 가볍게 주물러 꼭 짜서 널고. 처음과 같이 다시 염액에 넣어 2회를 더 반복하여 20분 동안 염색한다.
- ③ 두 번째 염액은 좀 진하게 해서 쓴다. 온도는 60°C 정도로 하여 천을 넣고 가볍게 주물러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 ④ 처음에는 상온에, 나중에는 높은 온도 염액에 2회 염색하고 말린 천을 후매염 한다. 염색한 원단이 적셔질 정도의 물에 명반을 넣는데 물 2L에 명반 1~2g을 넣는 것이 적당하다. 완전히 녹으면 염색 천을 담가 가볍게 주무른다. 20분 동안 담근 후 잘펴서 빨랫줄에 널어 둔다. 바로 말리지 말고 먼저 맑은 물에 수세한다. 수세할 때는 가볍게 헹구기를 3회 정도 하고 건조시킨다.
- ⑤ 다시 염색을 하여 색을 진하게 하고 싶으면 본 선매염할 때처럼 물 2L에 면과 마는 소다(탄산) 2g, 명반 2g을, 울과 명주에는 각각 1g씩을 따뜻한 물(40~60℃)에 잘풀어 놓는다. 염색한 원단을 넣고 가볍게 주물러 준 다음 30분 동안 담가놓는데 원단이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수세한 후 건조시켜 중간에 매염을 한 번 더한다.
- ⑥ 새 염액으로 다시 앞 과정을 반복 염색한다.
- ⑦ 마지막 염색이 끝나면 색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이 수세하여 말린다.



⁸⁵⁾송화순 (2004). p.179





<그림 52> 소목심재와 소목 염색물

(7) 코치닐(Cochineal)

코치닐은 패각층과에 속하는 벌레로 연지충이라고 한다. 원산지는 페루, 칠레 등의 중남미이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천연색소중의 하나이다. 내열 및 내광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좋아서 적색 색소로 용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무독성이다. 락 충보다 색이 바래는 편이나 밝은 색상을 만들어 낸다. 모직물에 염색하면 밝은 적색을 낸다. 코치닐을 분쇄하여 끓여서 염액을 추출한다.

<코치닐 염색 순서 >

- ① 원단을 물에 먼저 적신 후 탈수를 해둔다.
- ② 염액을 끓여 추출하는데 동물성 섬유에는 온도를 50~60℃로 하고 식물성 섬유에는 70~80℃로 한다.
- ③ 염액에 원단을 담구어 충분하게 주물러 준다.
- ④ 코치닐은 Ph에 따라서 다르게 발색된다. Ph5~6 산성에서는 적색, Ph7 중성이상에서는 자색을 나타낸다.
- ⑤ 매염제에 따라 색상이 다르다.





<그림 53> 코치닐 연지충과 코치닐 염색물



(8) 메리골드 (marigold)

메리골드는 국화과의 한 두해살이의 화훼 식물로 원산지는 멕시코이다. 천수국이라고도 하며 주요 색소는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이다. 태양빛처럼 선명한 오렌지색의 꽃이 피고 단일성 색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로서 잎이나 꽃, 줄기도 염색이 잘된다. 화단용으로 도로변에 많이 장식용으로 심어져 있어서 꽃이 시들면 전량을 폐기하기 때문에 염재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⁸⁶⁾. 자원재활용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도 크고견뢰도도 좋은 편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색을 낼 수 있으므로 인기 염료식물이라 할수 있다. 연한 황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짧은 시간 동안 염색을 한다. 화려한 금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산를 넣은 후 백반으로 매염처리를 한다. 철장액으로 후매염을 하면 카키 빛이 도는 색을 얻을 수 있다.

<메리골드 염색 순서>

- ① 꽃이나 줄기 잎을 사용하여 끓인다. 마른 풀도 하루 전에 담가서 끓여서 사용한다.
- ② 정련한 원단을 넣고 충분히 주물러 준다.
- ③ 맑은 물로 수세한 후에 후매염을 한다.
- ④ 매염제를 2~3%희석한 후에 20분정도 매염한 후에 깨끗하게 수세한다.
- ⑤ 매염제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다.





<그림 54> 메리골드 꽃과 메리골드 염색물

⁸⁶⁾김성현, 서윤종 (2004). p.146



C. 주름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1. 섬유 작품 사례

주름을 이용한 섬유작품의 사례는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5>의 작가 고윤희는 「The pleated blue」에서 겹 주름을 잡아 조명등처럼 신기한 불빛을 표현하는 효과를 연출한 작품과 그림자와 색조에 따라 변화하는 바다를 모티브로 바다 자연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블루로 염색한 후 염색된 부드러운 면 소재인 천을 플리츠처럼 접어 봉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작품을 '마음 속 바다풍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홍명숙의 「여심」<그림 56>은 산성염료로 염색해 플리츠기법을 활용하여 노방으로 영구적인 주름을 잡아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변화를 주었고 부드러운 여자의 마음을 색상과 주름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다. 조영주의「한글을 차용한 디자인」<그림 57> 은 가죽·말총 등 다양한 소재를 써서 주름을 잡아 한글 차용한 디자인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주름잡는 과정을 통해 섬유 조형 순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냈다. 한 글을 차용한 가죽소재를 사용해 주름을 잡음으로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김성달의 「Slash-Rose II」<그림 58>은 니트로 주름을 만들어 접는 방식에 따라운동감을 표현했고 주름을 통해 변화의 움직임을 조형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름을 접힘의 소멸이 아니라, 접힘의 연속이고 넓혀 나가는 확장이라고 해석하였다. 니트라는 섬유재료를 이용하여 루프를 생성하여 순환과 반복의 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름은 잡혀 있지는 않으나 꽃문양이 된 원단으로 봉제 후 가위로 절개를 하여 주름 효과처럼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달의 「유기적 개체」<그림 59>는 살아서 움직이는 연속성을 생동감 있게 주름을 잡아 잘 표현하고 있다.

정예금의 「기억의 장॥」<그림 60>는 전사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부직포를 구겨서 주름을 잡아 그 구김 위에 전사한 후 조각을 자르고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작은 단위들이 싸여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닥펄프를 활용해 자연의 느낌과 기억을 회상하는 작품으로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반추하는 듯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인공적 소재의 다양성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작가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상징적 이미지는 섬유 공예의 틀을 벗어난 표현의지와 예술적 상상력의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다. 열 전사기법을 기본으로 하는 작업의 특징을 입체 회화라는 블라인드



작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61>의 「버들」은 화면의 미세한 주름이 미세한 천의 질감을 표현 할 수 있는 재료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듯한 작품이다. 자연에서 채취한 사물의 사용으로 이미지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소 스산하면서도 서정적인 가을의 느낌을 "억새의 질긴 듯 강인한, 그러면서도 찬바람에도 흔들리는 작가 자신의 여리고 섬세한 감수성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섬유 작가 이성순의 「또 다른 세계 3」<그림 62>은 실크로 기계주름을 잡아 스카프로 활용하여 실용성과 예술성, 창작성을 잘 표현했다. 1989년에 시도한 작품으로 생활미술의 실용성을 부가시킨 한 예가 되었다. <그림 63>의「창밖」은 벨베틴을 바탕으로 실크스크린을 통해 판의 확대를 시도하여 접혀지는 천의 질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해서 독특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의도한대로 접고 구긴 다음 스프레이를 뿌려 다 마른 다음 펼치면 마치 구겨지고 접혀진 것 같은 착각의 화면이 된다.

<그림 64>의 이영주의 「지난 날의 기억」은 열 전사염 기법으로 구김 효과를 내어 부드러운 색상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크랙을 준 전사염을 통해 이중문양을 표현했으며 부드러운 흰 천에 구김을 잡 아 주름효과를 내어 조형감을 잘 살리고 있다. 천에 염색을 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 친 후에 그 천을 올려 놓음으로 섬유의 질감을 강조하고 잔주름을 통해서 부조적인 질감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을이 지나가버린 스산한 겨울을 마치 한 폭의 고향 풍경과도 같은 이미지로 잘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늦가을」<그림 65>도 단풍이 든 가을의 이미지를 전사염을 통해서 회화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균일한 거미줄과도 같은 바탕의 선들이 붉게 물든 나뭇잎을 표현하며 고 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의 평화를 준다. 하얀 천에 주름을 이용한 이중적인 효과를 표 현한 서정적인 느낌이 얇은 천에 구김을 주어 자연의 이미지를 섬유로 표현하는 입체 회화로 재해석 한다.

<그림 66> 이신재의 「사랑」은 면으로 접어서 반복적으로 비틀고 접어 물결무늬를 만들고 꿰매어 고정시켰다. 여러 개의 소폭직물을 반복하여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여 그것을 일렬로 놓아 중간 방향을 볼록하게 튀어 올라 음영진 부분을 만들어 올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파일직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림 67>의 왕경애의 「순환구조」는 강렬한 색의 대비로 인상적이고 원이라는 모양을 통해 순환과 공동체적 의식을 표현한 섬세한 작업으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점이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그리핀(Elizabeth Griffin)의「The time before the time after」<그림 68>은 울과 면과 린넨으로 직조를 하여 구불거리는 러플 주름 기법으로 디테일을 표 현하였다. 저스틴 림퍼스 파리스(Justine Limpus parish)의「Scarf/ Nelace」<그림 69>은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홀치기 염색을 하여 주름효과를 극대화시켜 목둘레에 두 르고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열 고정을 하여 영구적인 주름을 잡 은 것이다. 마리카 왈드만(Marcia Waldman)은「Lemonade dream」<그림 70>에서 계절 이 바뀔 때의 작가의 기분과 작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나타내기 위해 한 가지 칼라 로 작품을 표현하였고 그를 통해 오렌지 빛깔의 따뜻한 느낌을 주었으며 직물과 리본 테이프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구불거리는 플라운스를 형성함으로서 계절의 가을 느낌 을 잘 표현했다. 인지 스탈(Inge Stahl)의 작품「Heart constriction」<그림 71>은 면실을 이용하여 제작한 드레스 작품 시리즈 중의 하나로 몸과 영혼의 아름다움, 고 통을 표현하였다. 켜켜히 접혀있는 주름사이로 삶에 대한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였고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코르셋으로 영혼과 단절된 세계를 표출해 냈다. 이 섬유 작품 에서의 주름은 우리 인간들의 고뇌를 표현을 통해 투영하고 있다. 프리실라 세이지 (Priscilla Sage)의 「Azure symphysis」<그림 72>은 기계와 손으로 주름을 잡은 전 사염으로 마치 부채모양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은사와 혼방을 하여 광택감을 주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이 서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루드 위카 지드위즈(Ludwika Zythiewicz)의 작품「Ostrowska」<그림 73>는 홀치기 염색법 을 활용하여 강제로 자연스럽지 않는 형태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지를 나타냈 다. 주름을 잡은 실크를 말아 올려 강렬한 순간을 포착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입 체적인 표현법을 사용했다. 김연희의 「실루엣」<그림 74>은 린넨 소재로 잔주름을 잡은 프릴을 디테일하게 활용하여 조형감을 극대화 하였다. 부드러운 린넨으로 주름 을 만들어 드레스를 제작함으로서 과장된 실루엣을 하나의 조형예술 직품으로 승화시 키고 입을 수 있는 의상이 아닌 보는 의상으로서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작가 브레나 버스(Brenna Buss)은 「Earth elegance」<그림 75>에서 자연스런 녹색을 활용해 마음 의 병을 치유하는 지구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레이온과 울을 혼용한 소재로 주름을 잡아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핸드메이드 염색으로 최대한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원초적인 인간의 본질을 인형옷의 자연적인 잔잔한 주름을 통해 표현한다.





<그림 55> 고윤희 - 2013년 The pleated blue ; 면⁸⁷⁾



<그림 56> 홍명숙 - 1989년 여심 ; 노방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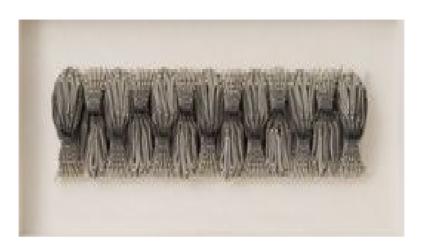


⁸⁷⁾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712595,(2014.10.15.12:44) 88)섬유미술가회기획전도록 (1989)



<그림 57> 조영주 - 한글을 차용한 디자인 89)

⁸⁹⁾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98,(2014.10.25.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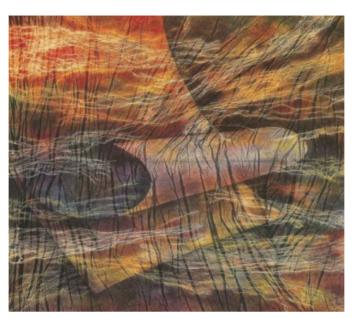
<그림 58> 김성달 - The mixed techniques ; fabric 76×50cm 2008 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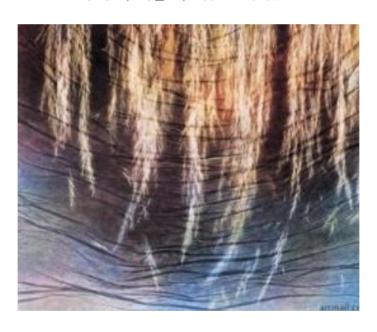
<그림 59> 김성달 - 유기적 개체(organic unit) ; fabric ⁹¹⁾



⁹⁰⁾http://daljin.com/column/9909,(2014.10.25.12:39) 91)앞의 웹사이트



<그림 60> 정예금 - 1995년 기억의 장 II ; 부직포, 닥펄프, 106 × 151cm 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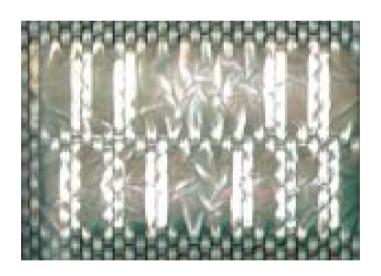


<그림 61> 정예금 - 2006년 버들 ; 부직포, 닥펄프, 39.3×548cm ⁹³⁾

⁹²⁾정예금섬유미술전도록,(1995)



<그림 62> 이성순 - 1989년, 또 다른 세계 3 ; 견, 노방⁹⁴⁾



<그림 63> 이성순 - 1991년, 창밖. ; 벨베틴, 반응성염료,115 x 87cm ⁹⁵⁾

⁹³⁾http://www.artmail.co.kr/db/2006/20061017-jungyeakuem-1.htm,(2014.10.25.12:37) 94)섬유미술가회기획전도록,(1989)

⁹⁵⁾송번수 (1996),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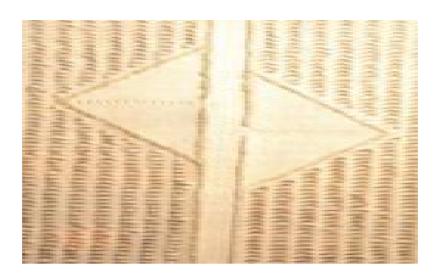
<그림 64> 이영주 - 1990년, 지난 날의 기억 ; 면, 1000×800cm ⁹⁶⁾



<그림 65> 이영주 - 1990년, 늦가을 ; 면, 800×1000cm ⁹⁷⁾

96)이영주전 도록,1990 97)앞의 도록,1990





<그림 66> 이신재 - 1993년, 사랑 ; 면, 소폭직물 ⁹⁸⁾



<그림 67> 왕경애 - 2010년, 순환구조 ; 플리츠 직물, 솜 ⁹⁹⁾

⁹⁸⁾앞의 책, p.86

⁹⁹⁾http://blog.naver.com/8300lym/90083677553, (2014.10.28.11.32)



<그림 68> 엘리자베스 그리핀-The time before the time after ; 울, 면, 린넨100)



<그림 69> 저스틴 림퍼스 파리스 2000년, Scarf/Nelace ; 폴리에스테르¹⁰¹⁾



¹⁰⁰⁾ The Fiberarts design book, II (1983) Larkbooks, p.62

¹⁰¹⁾Textiles The art of mankind, p.393



<그림 70> 아리카 왈드만 -Lemonade dream ; 면, 리본테이프 ¹⁰²⁾



<그림 71> 인지 스탈 -Heart constriction ; 면, 47x23x14inchs¹⁰³⁾



¹⁰²⁾The Fiberarts design book, II(1983), p.57
103)Fiberarts design book, six, (1999), Larkbooks, p.83



<그림 72> 프리실라 세이지-Azure symphysis ; 24 x 63 x 24inches¹⁰⁴⁾



<그림 73> 루드위카 지드위즈 - Ostrowska, 2007년 ¹⁰⁵⁾



¹⁰⁴⁾The Fiberarts design book, II(1983) p.65 105)Textiles The art of mankind, p.402



<그림 74> 김연희 - 실루엣 ;린넨106)



<그림 75> 브레나 버스 Earth elegance
;울, 레이온, 26 x 16 x 4inchs¹⁰⁷⁾



¹⁰⁶⁾http://cafe.naver.com/muslin/1399,(2014.10.28.10:39)

¹⁰⁷⁾ The Fiberarts design book, six(1999), p.86



2. 의상 사례

주름은 종류가 다양하다. 의상디자인에 있어서 세부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옷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사용하기도 하며 대조적인 의미로 장식되는 여러 부분이라고할 수 있다. 고대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름이라는 디테일은 복식에 적용되어 왔다. 주름옷에서는 기계주름의 대명사로 유명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1938~)의 작품을 살펴봐야 한다. <그림 76>은 2015년 컬렉션의 의상 중의 하나로 정묘하고 섬세한 색상, 특이한 소재, 대담한 재단으로 기능성 있는 옷을 발표하였다. 활동적이고 조형감이 있는 의상은 미야케를 국제적인 주름의상 디자이너로 만든 것이다. 108)

<그림 77> 은 자유로운 형태의 조형의상으로 화려한 색상과 원추형의 모양은 예술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기계주름한 원단을 기하학적인 염색을 통해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현실의 일상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림 78>은 2013년의 작품으로 인체의 움 직임에 따라 표현되는 형태의 선, 그의 디자인 철학이 구체화 된 것으로 주름잡은 천 을 걸쳐 커다란 실루엣을 강조하여 진보적이고 미래적인 경향을 표현한다. <그림 79> 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앵그르¹⁰⁹⁾의 누드화를 콜라쥬 했다. 입었을 때 이 날염한 이미지는 세 개의 신체가 어울리면서 환상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ahinuma, 1958~)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텍스타일직물을 찾지 못하자 직접 텍스타일 작업을 시작했다. 열처리 텍스타일을 통해 얻은 아름다운질감에 매혹되어 열접착 폴리에스테르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텍스타일을 연출했다. 그는 대부분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스타일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직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의 출치기로 만든 주름 효과와는 달리하여 <그림 80>의 금속 빵틀과 같은 것을 주형으로 사용해 성형된 직물의 특성을 활용하고 작은 부분에 집중한 부분적인 작업으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질감을 보여 준다.<그림 81>< 그림 82>도 히시누마의 작품으로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부분적 주름을 허리 라인에 주어 입체감을 주어 부조적인 효과를 표현한다. <그림 83>은 요철감 있는 원단으로만든 원피스로 그라데이션한 색상이 신비스런 느낌이 든다. 소재에 대한 빈곤에서 해방하고자 노력한 그는 녹는 실을 이용한 봉제 방법으로 입체감 있는 직물을 가공하여



¹⁰⁸⁾김창준 (1991), 20세기모드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라사라, p. 130

¹⁰⁹⁾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19c 프랑스 고전주의 화가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방법을 특허를 내어 독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 경향을 보면 부분적으로 디테일로 사용한 점이 본 연구자와 흡사한 면이 있다.

한복디자이너 이영희는 <그림 84>의 개더 드레스 작품에서 한복 치마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제작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무지기치마처럼 층층히 이어진 주름은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한복의 전통의 소재에서 우러나오는 풍성한 주름으로 한복의 무 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정희의 색동으로 만든 에스닉 의상 <그림 85>은 뒷부분을 플리츠로 접어서 패치워크하여 제작한 것으로 현대미와 전통미를 조합한 드레스라고 할 수 있다. 이광훈의 작품 <그림 86>은 분무염으로 색상을 표현하였고 소재는 펠트 (felt)로 프릴을 잡아 드레스 전체에 부조적인 표현을 프릴이라는 작은 주름을 잡아 서 예술 의상을 제작한 것이다. 지춘희도 역시 <그림 87> 의상에서 흐르는 듯한 실크 소재에 집중적으로 러플 주름을 잡아 심플한 원피스 아랫단에 덧대어 여성성을 강조 하였다. 범영순은 봉재 시 불량으로 나오는 퍼커링을 주름이라는 테크닉으로 자연에 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88>은 사막을 모티브로 활용한 퍼커링 기법을 전체적으로 구성된 스타일의 투피스이다. 스탠 칼라 재킷으로 앞, 뒤에 전체 적으로 주름을 잡아 표현하여 무거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복식조형의 입체적인 화 려한 분위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였고 뒤 중심에 불규칙한 문양배열은 새로운 느낌 을 주고 있다. <그림 89>의 소재는 마로 직선적인 실루엣이 강조되었고 아플리케 장 식으로 주름을 만들어 독창적인 조형미를 살리려고 하였다. 바지 무릎 선에 포인트를 준 주름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신선한 디테일을 느끼게 해준다.

박재원은 한지 테이프와 천에 형광염료를 입혀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며 움직이고 있는 작품 <그림 90>을 1999년에 발표하였다. 옵 아트(optical)적인 작품으로, 바디에 입혀져 있는 한지의 부드러운 촉감은 플라운스처럼 하나의 디테일을 형성했으며 빛을 발하는 연두 빛 형광색의 에너지가 눈의 망막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시각적 전단계를 통해 객관적인 지각 반응을 나타낸다. 옵아트는 구성주의와 연계되며 기하학적인 면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는다.110)

제이슨, 티 멜리 머레이(Jason, T Kelly Murray)의 「Phone book dress」<그림 91>는 폐기처분되는 전화번호부를 칵테일드레스로 업 사이클링 시킨 것으로, 쓰레기로 치부되던 오래된 전화번호부의 각 페이지가 주는 소재의 미묘한 질감과 구겨진 주름과 같은 장식적인 기법에 의해 예상치 못한 문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작가의 디자인적



¹¹⁰⁾김혜경 (2004), 패션트랜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p.106

감성이 더해져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패션아트의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림 92>에서는 예술 의상에 쓰이는 직물 라벨을 프릴처럼 의상아랫단에 부착하여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독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별한 용도에 맞추어 디자인하는 본래의 의상의 개념이 아닌 조형 예술로서의 섬유 의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S/S 꼼데 가르숑 파리 컬렉션에서 보여준 의상 아이템은 빨간 천을 겹겹이 주름잡아 띠로 묶어 섬유 예술이 의상디자인과 접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3>의 장식표현은 아트적이고 실험적인 의상이며 프릴, 플라운스, 꽃모양 등의 과장된디자인을 창의적 발상으로 표현한 꼼데 가르숑은 조형개념의 다변화로 섬유예술의 새로운 모색과 의상분야의 조형적 표현에의 추구로 패션과 아트의 만남을 주름이라는디테일로 과장스럽게 표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림 94>는 비닐소재와 천의 만남으로 프릴을 작게 잡아서 둥근 원통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실루엣을 표현하고있다. 양 쪽 끝으로 주름 잡은 러플로 입체적인 조형감을 연출하고 빨간 꽃처럼 접어진 둥근 실루엣에서 모델의 흰 팔과의 대비는 전위적인 느낌으로 다가 온다. 세세하게 잡은 주름이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였고 비닐 소재와 섬유의 조화를 통한아트웨어의 진면목을 표현하였다.

<그림 95> 코사렐(Cacharel)의 작품은 밝은 컬러의 레이스를 매치시킨 아이템으로 프릴장식과 함께 투명한 레이스와 레이러드한 스타일이 독특하고 잔잔한 러플로 장식 한 스커트의 동그란 꽃문양은 도심의 낭만과 자유로움을 밝고 활기차게 표현하고 있 다. <그림 96>의 알비에로 마르티니(Aviero Martini)의상은 셔링과 러플, 프린지 장 식이 가미된 이국적인 아이템으로 부드러운 소재의 가죽을 매치시켜 좌우의 디자인을 달리하여 주름을 다양하게 넣어줌으로서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76> 이세이 미야케 -2015년, Spring/Summer¹¹¹⁾



<그림 77> 미야케 -자유로운 조형감¹¹²⁾



2013년, Spring/Summer¹¹³⁾



<그림 79> 미야케 -앵그르 누드 콜라쥬¹¹⁴⁾

¹¹¹⁾http://blog.naver.com/istyleamy?Redirec,(2014.10.20.16:30) 112)http://blog.daum.net/film-art/13742782,(2014.11.01.15:19) 113)http://blog.naver.com/istyleamy?Redirec,(2014.10.20.16:30)

¹¹⁴⁾사라E 브래독 마리오마호니 (2012), p.117



<그림 80> 요시키 히시누마 - 빵틀로 나타낸 열고정 주름표현¹¹⁵⁾



<그림 81> 히시누마 - 열고정 주름표현¹¹⁶⁾



<그림 82> 히시누마 의상의 부분적 주름 표현¹¹⁷⁾



<그림 83> 히시누마 의상의 부분적 주름 표현¹¹⁸⁾



<그림 84> 이영희 -개더기법¹¹⁹⁾



<그림 85> 김정희 -플리츠기법¹²⁰⁾

¹¹⁵⁾사라E 브래독 마리오마호니 (2012), 예경, p.122

¹¹⁶⁾앞의책, p122.

¹¹⁷⁾http://emilyartsinnovation.wordpress.com/2014/01/04/yoshiki-hishinuma,(2014.10.29.20:00) 118)앞의 웹사이트

^{119)2007,} Fall/Wlinter Seoul Collection book

¹²⁰⁾정동림 (1999), 섬유염색, 서울: 교학연구사. p.51



<그림 86> 이광훈 -프릴기법¹²¹⁾



<그림 87> 지춘희 -러플기법¹²²⁾



<그림 88> 범영순 -투피스¹²³⁾



<그림 89> 범영순 -트렌치코트¹²⁴⁾

¹²¹⁾앞의 책, p.86 122)2007, Fall/Wlinter Seoul Collection book



<그림 90> 박재원 -옵아트, 1999, 플라운스125)



<그림 91> 제이슨 티 캘리 머레이 -전화번호부 드레스¹²⁶⁾



<그림 92> 김혜경 -1998년, 라벨¹²⁷⁾

123)범영순(2007), Puckering technique을 활용한 패션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1

124)앞의 논문, p.83

125)김혜경 (2004), p.106

126)http://www.rjcc.or.kr/?document_srl=2568&mid=lssue&listStyle=viewer&page=7,(2014.10.28.22:58)





<그림 93> 2015년 S/S 꼼데가르숑 파리컬렉션 -아트웨어1 ¹²⁸⁾



<그림 94> 2015년 S/S 꼼데 가르숑 파리컬렉션 -아트웨어2 ¹²⁹⁾



¹²⁷⁾앞의 책, p.102

¹²⁸⁾http://blog.naver.com/bodyandsoull?Redirect=Log&logNo=220135224126,(2014.10.22.16:20) 129)앞의 웹사이트



<그림 95> 코샤렐 - 러플기법¹³⁰⁾



<그림 96> 알비에로 마르티니 - 셔링, 러플기법¹³¹⁾

¹³⁰⁾²⁰⁰² S/S PARIS-MILANO COLLECTION, 동아TVCH34, p.265 131)앞의 책, p.35



D. 작품 제작

1. 디자인 의도 및 컨셉

주름기법을 이용한 의상디자인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찾아 작품을 구상하였다. 소재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섬유를 사용하였고 염색은 천연염색으로 최대한 자연으로돌아가고픈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자연에의 회귀"라는 테마로 잡아 보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천연염색을 통해 철학적 감성을담아보려 했으며 절제된 디테일로 과장되지 않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작품 소재에 감물로 먼저 염색한 후 문양을 표현하고 그 위에 다른 염료로복합 염색하여 색상을 발현하였다. 주름 표현은 칼라나 포켓, 요크 부분에 대칭이나비대칭의 황금비율로 입체감을 부여하여 부조적인 질감을 살려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소재는 실크나 양모, 가죽, 스웨이드, 또 한복에 흔히 쓰이는 옥사나 춘포,모시, 한지섬유를 사용하여 다양한 질감을 나타내었으며 한지섬유인 니트 조직에 퀼팅을 하여 보온성을 주고 한지 데님으로 가방과 슈즈도 제작을 하였다. 천연염색으로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염색은 대량생산의 획일화된 소재에서 탈피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에게 독창적인 디자인을 부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수 있었다.

이 연구 논문은 주름기법을 화학적인 시트를 활용하여 열 고정 처리하여 표면에 입체적인 질감을 나타내고 봉제 테크닉을 이용해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실생활에 입을수 있는 상품성 있는 작품들로 구성하고 천연염색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색상과 주름테크닉을 활용한 실용적인 섬유 의상 작품을 제작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독특하고개성 있는 의상디자인을 갈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코자 한다. 의상제작 기획은아방가르드(Avant-garde)하고 모던하며 도회적이며 자유로운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로 30~50대를 타겟 에이지(Target age)로 삼아 차별화된 의생활의 여유를 즐기며 건강한생활환경을 중요시하고 웰빙(Well-being)을 원하는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평면적인 소재에서 오는 디자인의 한계에서 벗어나 부조적인 입체감을 준 소재의느낌은 디자인에 차별화된 독창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천연염색과 잘 조화되어 고



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감각의 수공예적인 주름 기법을 통해 천연염색 의상에서 흔히 시도하지 않았던 디테일을 나타내어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작품은 원피스, 투피스, 코트, 하프코트, 슬리브리스 원피스, 베스트, 케이프 등의 아이템으로 제작하였다.

2. 연구자 기법 제시

본 연구자는 봉제 테크닉을 이용하여 물에 녹거나 오그라드는 특수 화학물질이 처리된 소재를 겹쳐 봉제한 후 열을 가하면 습기에 의하여 줄어드는 성질을 이용하여 직물에 표면적인 입체감을 나타내는 기법을 의상디자인에 부분적인 디테일로 사용하는 디자인의 발상을 시도했다. 열에 반응하는 특수소재 빌리포픽스(Vlieofix), 솔루빌리스(Soluvlies)를 직물과 함께 봉제하면 스티치 방향에 따라서 주름 형태가 완성되는데 직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4> 작업과정



1.의복에 들어갈 패턴을 준비 한다



2.아래에 솔루빌리스를 깔고 직물을 위에 올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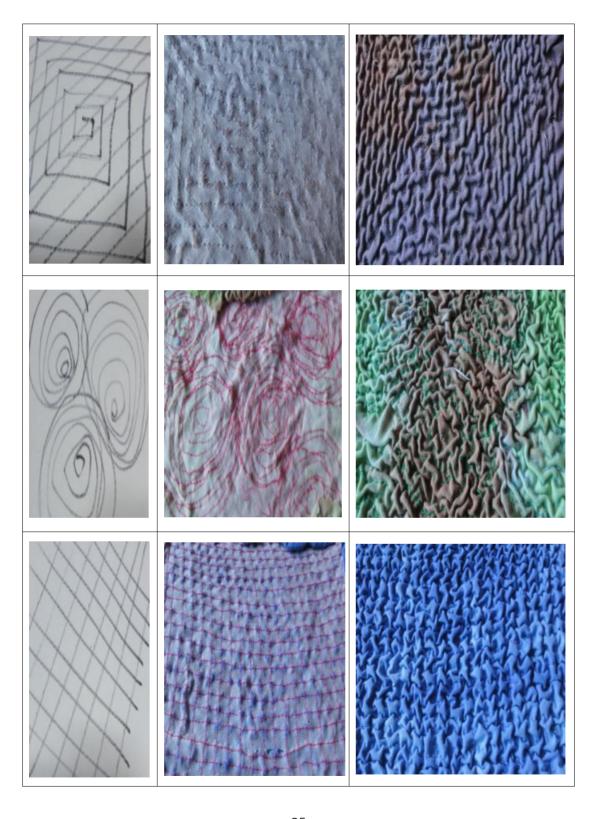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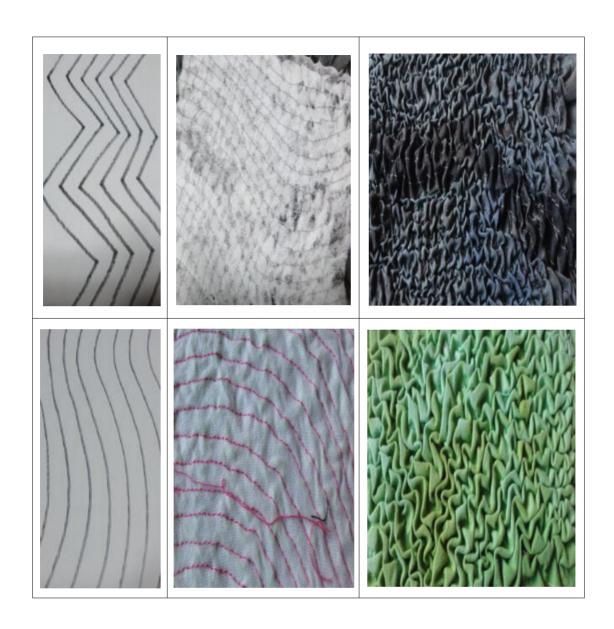
<표 15> 봉제테크닉에 따른 주름의 모양

| 봉제테크닉 | 주름모양 (뒷면) | 주름모양 (앞면) |
|-------|--|-----------|
| | The second secon | |











3. 디자인 제시

주름기법을 이용하여 천연염색 의상디자인 개발의 작품 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표 16> 작품 계획표

| 번호 | 색상 계열 | 염료 | 스타일 | 소재 | 기법 | 구성 |
|----|-------|---------------------|-----------|-----------------|------------|--------------------|
| 1 | 2 | 감, 쪽, 메리골드 | 로맨틱 | 한지편물, 양피, 데님 | 주름 패치워크 | One-piece Vest |
| 2 | 4 | 감, 쪽, 황벽 | 로맨틱 모던 | 실크, 양피 | 주름 패치워크 | One-piece, |
| 3 | V | 감, 쪽, 황벽, 코치닐 | 모던 | 실크, 양피 | 주름 | One-piece, Coat |
| 4 | | 락, 오배자 | 모던 | 양모 캐시미어 | 주름 패치워크 | Coat |
| 5 | | 쪽 | 모던 | 자카드 실크 | 주름 | One-piece, Coat |
| 6 | | 감, 소목 | 엘레강스 | 옥사, 쉬 폰 | 주름 | One-piece -coat |
| 7 | | 코치닐, 소목 | 모던 | 양모 캐시미어 | 주름 | One-piece |



| 8 | 16 | 치자, 소목 | 모던 | 양모 캐시미어 스웨이드 | 주름 | Half-coat |
|----|----|----------------|-----------|-----------------|------------|-------------------------|
| 9 | 1 | 코치닐, 쪽 | 케쥬얼 | 울100%개버딘 | 주름 | Two-piece |
| 10 | 1 | 쪽 | 엘레강스 | 울100%개버딘 | 주름 | Two-piece |
| 11 | | 감, 쪽, 황벽 | 아방 가르드 | 실크 | 주름 | One-piece |
| 12 | - | 쪽, 황벽 | 모던 | 모시, 춘포 | 주름 패치워크 | Sleeveless one-piece |
| 13 | J | 쪽, 감, 황벽,치자 | 모던 | 양모 스웨이드 | 주름 | Coa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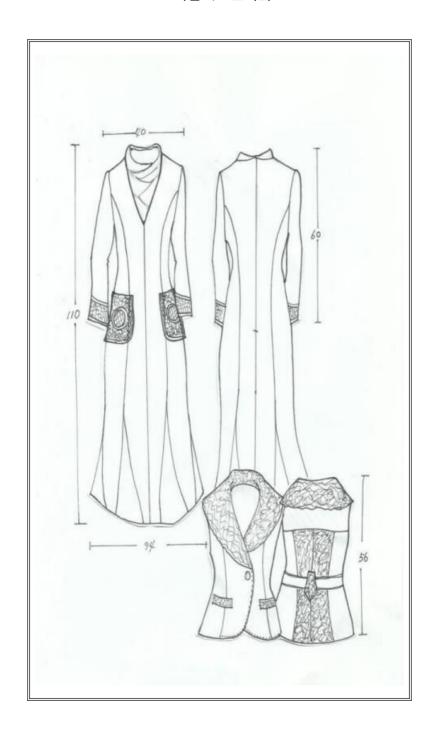
<작품 1> 사진







<작품 1> 도식화



<작품 1> 작품설명

| 아이템 | 원피스, 모자, 가방, 부츠 | | |
|-------|---|--|--|
| | | | |
| 소 재 | 한지편물, 데님. 양피가죽, 충전제 솜. 메리골드. 감물, 황벽. 쪽 | | |
| 색 상 | 노랑, 녹색, 갈색계열 | | |
| 기 법 | | | |
| | 염색 :① 원피스 - 감물로 문양을 잡은 뒤 메리골드염색, ② 베스트 - 감물, 쪽, 황벽 주름 : 곡선박기(칼라, 소매끝단. 포켓, 가방) | | |
| 작품 설명 | 한국의 옷인 당의 선에서 모티브을 얻어 원피스를 고어드 스커트로하여 당의 선처럼 스커트 밑 부분에 곡선 플레어로 디자인 하였다. 한지 니트 직물의 드레이프한 느낌을 살리기위해 카울 칼라로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베스트는 솜을 넣어 퀼팅을 하여 보온성을 부가시킨 실용적인 의상이다. 베스트는 칼라에 브라운 톤의양피로 주름을 잡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포켓은 메리골드(천수국)라는 국화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가방은 한지섬유 데님으로 주름을 넣어 제작하였고 슈즈도 데님으로 부츠로 제작하였다. 베스트를 숄칼라 자켓처럼 하였는데 원피스와 앙상블을 이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피스 포켓 부분에서 처음부터의도한 국화의 이미지가 연상 되지 않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차후다시 제작을 한다면 소재가 얇은 천을 이용해 주름을 잡아 국화의 이미지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 | |





<작품 2> 사진





<작품 2> 도식화



<작품 2> 작품 설명

| 아이템 | 원피스, 케이프, 부츠 |
|----------|--|
| 소재 | 실크. 양피, 목화솜, 감물, 쪽, 황벽, 코치닐, 락 |
| 색상 | 갈색기미의 녹색계열 |
| 기법 | 염색 : 감물 홀치기, 쪽, 황벽, 코치닐, 락 복합염 |
| | 주름 : 곡선박기,(케이프 앞면과 뒷면, 원피스 앞부분, 칼라) |
| 작품 설명 | 30~50대를 타켓으로 디자인을 구상하였고 소재는 실크를 사용하였으며 보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연 목화솜을 수작업으로 퀼팅을 하여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원피스는 H형 실루엣 라인으로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였다. 주름을 잡아 원단을 만들어 패턴을 제도하여 재단하였으며 그 결과 원단이 2~3배 이상 많이 소요 되었다. 컨셉은로맨틱하지만 캐쥬얼함을 강조하였고 케이프 코트를 덧입음으로서 젊어 보이는 발랄한 느낌을 살렸다. 케이프를 바지에 입으면 젊은연령층도 좋아할 수 있는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의상이라고 할 수 있고 원피스 앞부분에 주름을 잡은 원단을 패치 워크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중앙에 수직선을 넣음으로 키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나타내었다. 제8회 대한민국 천연염색 문화 상품 대전에 공모를 하여 금상을수상하였다.(2013.1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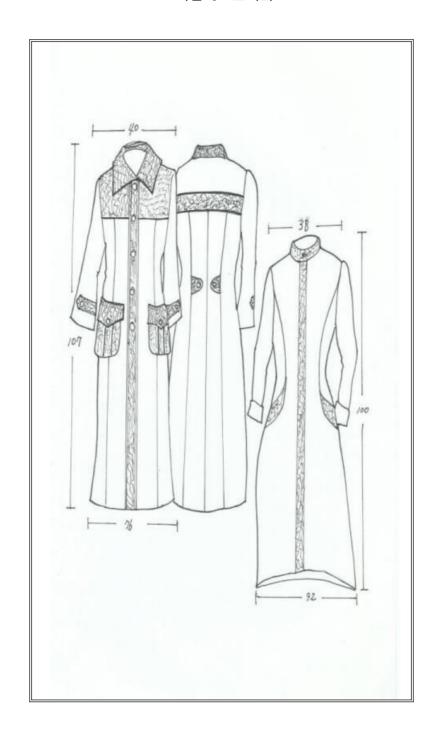


<작품 3> 사진





<작품 3> 도식화





<작품 3> 작품 설명

| 아이템 | 원피스, 코트, 가방 |
|-------|--|
| | |
| 소재 | 실크, 양피, 충전재목화솜, 감물, 쪽, 황벽, 코치닐, 락 |
| 색상 | 갈색 문양이 들어간 녹색 계열 |
| 기법 | |
| | 염색 : 감물 문양 염색 후 쪽, 황벽, 코치닐로 염색 |
| | 주름 : 곡선 박기, 주머니.(칼라, 앞단, 요크, 포켓, 가방) 도시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실용성과 보온성에 중 |
| 작품 설명 | 점을 두어 제작을 하였다. 도비실크는 한 겹으로 입으면 드레이프하고 얇아서 블라우스나 원피스로 많이 여성복에서 애용하지만 천연목화솜을 넣음으로서 보온성을 높이고 수작업으로 퀼팅을 하여 희귀한 소재를 만들었다. 칼라와 앞 중심선, 포켓에 주름 기법을 한 원단을 패치워크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살리고 독창적인 염색으로 나만이 입을 수 있는 희소성을 제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뒷면 요크의표면에 조형적인 예술적 감성을 잘 표현하여 디자인하였다. 모던한스타일이며 안에 입은 원피스는 스탠드칼라에 중심선과 포켓에 주름기법이 들어가서 재미있는 표현을 시도 하였다. 가방은 주름을 넣은원단을 패치워크하여 제작하여 토탈 코디네이션을 완성한다. 얇은실크지만 주름을 넣어 표면적인 입체적 질감을 주었기 때문에 겨울코트로 손색이 없다. 원피스 앙상블 코트 의상이지만 각각 달리 입어도 되는 아이템이다. |





<작품 4> 사진





<작품 4> 도식화



<작품 4> 작품 설명

| 아이템 | 코트 |
|-------|--|
| 소재 | 캐시미어 ,레이온 .코치닐, 락, 오배자 |
| 색상 | 아이보리 계열 |
| 기법 | 염색 : 락, 코치닐, 오배자 |
| | 주름 : 곡선박기,(앞면 주름 패치워크) |
| 작품 설명 | 부분적인 주름을 사용하여 앞면에 락과 오배자로 염색하여 코트의 색상과 배색하여 모던함을 강조하였다. 캐시미어는 가벼우며 보온성이 탁월하고 질감이 부드럽다. 앞면은 배색한 주름으로 패치워크를 하였고 스퀘어 네크라인이 단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패치워크한 앞면의 장식으로 지루함을 없애고 경쾌함을 표현하였다. 앞부분에 패치한 원단이 좀 더 얇고 부드러웠다면 주름효과는 더 섬세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부피가 있는 면과 혼용된 거친느낌의 레이온 직물의 주름 표현이 정교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캐시미어 소재와 양감을 맞추기 위해서 주름을 잔잔하게 두껍게 표현하여 물결무늬 표현을 하였다, 앞으로 이 소재 의상은화학처리의 주름기법이 아닌 '양 쪽 끝 러플'을 고정시켜 봉제하여 디테일을 양감으로 표현하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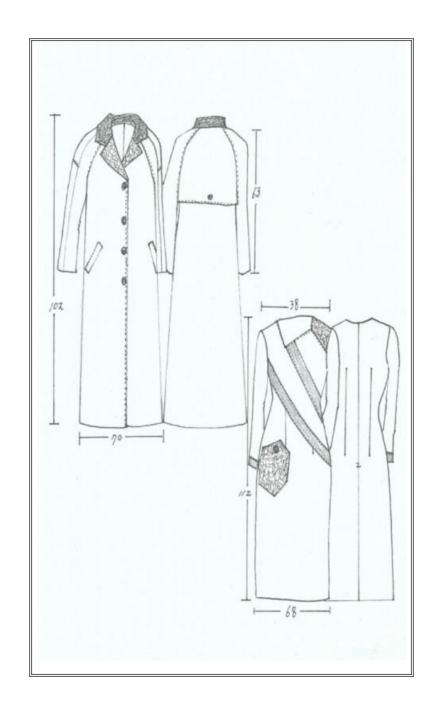
<작품 5> 사진







<작품 5> 도식화



<작품 5> 작품 설명

| 아이템 | 원피스, 코트 |
|-------|--|
| 소재 | 실크 자카드, 쪽 |
| 색상 | 블루 계열 |
| 기법 | 영색 : 니람 |
| | 주름 : 지그재그박기, (칼라, 포켓, 요크) |
| 작품 설명 | 한국 전통 쪽 니람 염색으로 원피스와 입을 수 있는 앙상블 코트이다. 원피스는 단순한 아이템이지만 검정 줄무늬를 사선으로 배색을하여 활동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스퀘어 네크라인이 비대칭으로 하여단순함을 피했고 코트는 라그란 슬리브로 하여 폭이 넓어 편하게 하고 소재에 금사가 섞여 있어 차분하지만 화려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부인복으로 적당하다. 칼라가 조형적인 입체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원피스와 함께 입음으로서 잘 차려입는 격식있는 의상 아이템이다. 주름은 부분적으로 들어갔는데 원단이 부드러워서 더 많은 부분을주름으로 처리를 하였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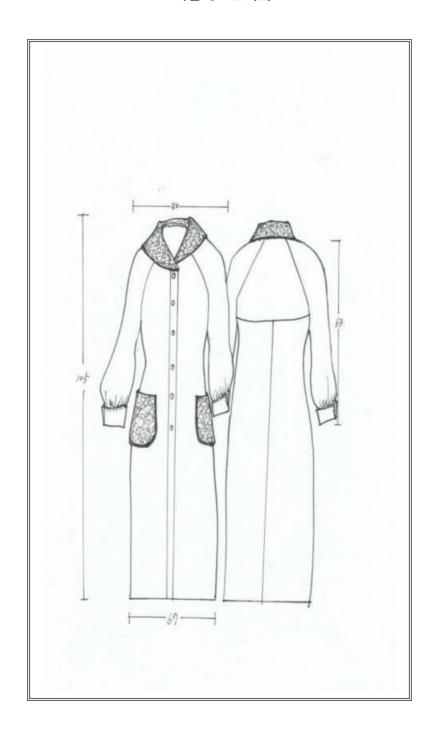


<작품 6> 사진





<작품 6> 도식화



<작품 6> 작품 설명

| 아이템 | 원피스코트, 모자. 가방, 부츠 |
|-------|--|
| | |
| 소재 | 옥사, 춘포, 쉬폰, 감물, 소목, 오배자 |
| 색상 | 베이지, 갈색, 자주색 계열 |
| 기법 | 염색 : 감물, 소목, 오배자 주름 : 곡선과 직선박기,(칼라, 포켓) |
| 작품 설명 | 한복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옥사를 현대인의 의상에 접목하였다. 원피스코트 앙상블로 간절기에 입을 수 있고 여름철 천연염색으로 인한 땀에 의한 변색을 막기 위하여 라그랑 슬리브를 쉬폰으로 사용하였으며 스탠칼라와 포켓에 주름 기법을 활용하였다. 춘포에 감물과 소목으로 복합염을 하고 오배자로 코팅처리를 하였다. 모자는 옥사의 얇은 소재로 챙을 넓게 하였고 가방과 신발을 제작하였다. 여러 번 염색한 소목염의 자주계열의 염색은 감물과 복합 염색하여 견뢰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 얇은 소재라서 주름을 잡으니 딱딱한 느낌이 전체적인 실루엣과 상반되어 아쉬운 감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상 무리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작품 7> 사진



- 107 -



<작품 7> 도식화



<작품 7> 작품 설명

| 아이템 | 원피스, 머플러 |
|-------|--|
| 소재 | 캐시미어, 코치닐, 소목, 락 |
| 색상 | 보라계열 |
| 기법 | 염색 : 코치닐, 소목, 락 |
| | 주름 : 지그재그박기, (칼라, 포켓) |
| 작품 설명 | 모던한 스타일로 이중 겹쳐진 칼라는 귀여운 느낌을 준다. 칼라와 포켓에 주름 장식기법이 들어갔으며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같은 원단의 머플러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보온성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자칫 밋밋함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수로 스티치를 놓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살려 보았다. 칼라와 포켓부분에 주름을 넣어 제작하였는데 효과는 좋은 것 같다. 복식조형의 입체적인 화사한 분위기를 표현하려 했고 머플러에도 셔링주름을 주고 자수 스티치를 놓아보았고 포켓을 달아 기능적이고 실용성을 강조한 의상이다. wool소재로 주름표현이 부드러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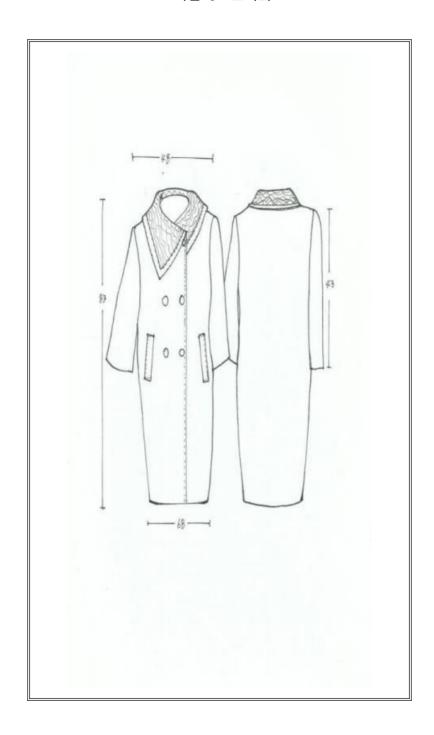


<작품 8> 사진





<작품 8> 도식화



<작품 8> 작품 설명

| 아이템 | 하프 코트 |
|-------|---|
| 소재 | 캐시미어, 돈피 스웨이드, 치자, 소목 |
| 색상 | 황금 골드 톤 |
| 기법 | 염색: 치자, 소목 주름: 곡선박기,(칼라) |
| 작품 설명 | 스웨이드를 커다란 플랫칼라로 만들어 주름 기법을 적용하였다. 브라운 스웨이드 색상에 곡선박기를 하여 주름 효과를 주었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표현되었다. 칼라 끝에 마무리를 캐시미어 원단으로 봉제하여 단정하고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주름을 형성하기위해 봉제를 해보니 스웨이드의 부피감이 있어서 좁은 간격으로 봉제를하면 두꺼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제할 때 스티치 실을 다른 색상을 사용해도 또 다른 느낌의 주름형성이 될 것 같다. 의도한대로 주름효과를 표출할 수 있었다. wool에 염색을 하니 원단이 많이 줄어들고 원단의 본연의 광택이 상실한 느낌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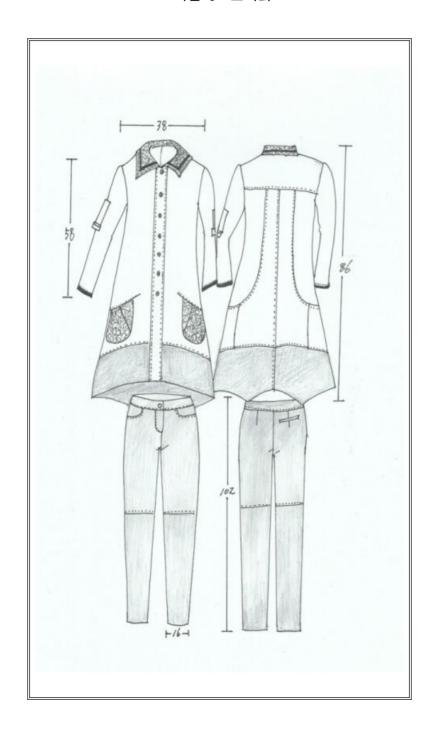


<작품 9> 사진





<작품 9> 도식화



Collection @ chosun

<작품 9> 작품 설명

| 아이템 | 투피스, 부츠 |
|-------|--|
| 소재 | 울100% 개버딘, 코치닐, 락, 소목, 쪽 |
| 색상 | 연보라 계열 |
| 기법 | 염색: 코치닐, 소목, 쪽, 락 |
| | 주름 : 방향선이 없는 봉제 선으로 교차하여 박기(칼라, 포켓) |
| 작품 설명 | 캐쥬얼한 디자인으로 바지는 부리를 6인치로 슬림하게 하여 젊은 느낌을 표현하였고 자켓은 아랫부분에 풍성한 여유를 주어 원피스 와 같이 폭이 넓으며 여러 갈래로 패턴을 나누어 재단을 하였다. 교차하는 선으로 봉제하여 불규칙하게 구불거리는 주름 효과를 표 현하였고 울100%의 개버딘의 드레이프한 느낌을 살리고 칼라와 자 켓 밑단에 어두운 감색을 배색하여 안정감 있고 활동적인 캐쥬얼한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칼라에 분홍색 레이온사로 스티치를 주어 변화있는 디자인을 시도 하였다. 드레시한 느낌도 있으나 캐쥬얼 느낌의 작품이다. 천연염색한 보라색 원단으로 부츠를 제작하여 코 디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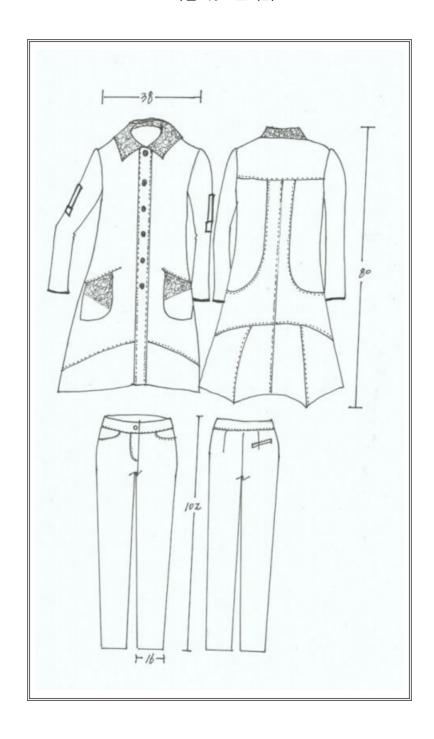


<작품 10> 사진





<작품 10> 도식화





<작품 10> 작품 설명

| 아이템 | 투피스, 부츠 |
|-------|---|
| 소재 | 울개버딘, 니람, 감물 |
| 색상 | 블루 계열 |
| 기법 | 염색 : 니람 주름 : 직선과 지그재그 박기 (칼라, 포켓) |
| 작품 설명 | 울 개버딘을 우리나라 전통 쪽인 니람으로 염색을 하였다. 케쥬얼하게 바지는 요즘 트랜드를 반영하여 피트되게 하였으며 칼라와 포켓에 주름 기법으로 장식을 하였다. 홀치기 염색을 하였고 레깅스에 입으면 발랄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칼라와 포켓에 주름 기법으로 장식을 하였다. 직선과 지그재그로 박아 불규칙한 주름을 만들었다. 칼라는 플랫칼라로 세워 입으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 한다. 포켓에 부분적 주름 장식을 넣어 요철감을 주었다. 투피스로 입는 것보다 레깅스를 입고 상의를 입으면 발랄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감물로 염색한 부츠를 제작하여 코디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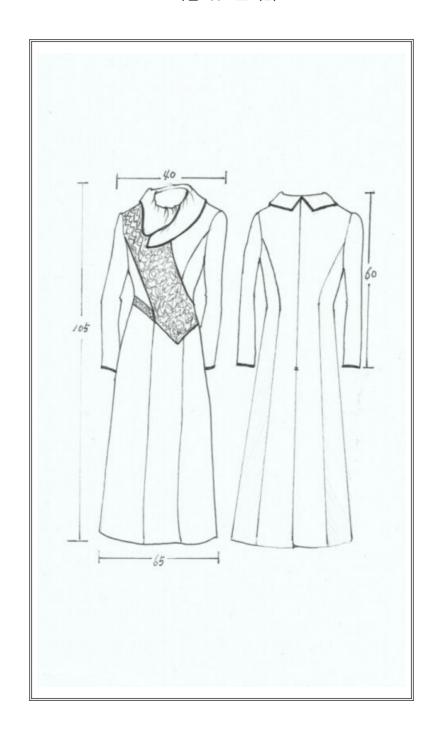


<작품 11> 사진





<작품 11> 도식화



<작품 11> 작품 설명

| 아이템 | 원피스, 가방 |
|-------|---|
| 소재 | 실크. 충전재 솜, 감물, 쪽, 황벽 |
| 색상 | 갈색, 녹색계열 |
| 기법 | 염색 : 감물, 쪽, 황벽 주름 : 곡선, 지그재그박기(앞면의 비대칭 요크, 가방) |
| 작품 설명 | 원피스 앞면에 봉제테크닉을 활용하여 원단을 만들어 재단하여 부조적인 느낌을 살려 보았다. 얇은 솜을 넣어 누비고 앞부분 비대 칭 요크에 표면적인 주름원단이 독창적인 조형미를 입체적으로 살리는 효과가 있다. 주름이 들어간 원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실크천에 얇은 솜을 패딩하여 천의 양감을 맞추었다. 항아리 느낌의 A라인 원피스 형으로 아방가르드하여 활동성이 있고 여유 있는 치수로 디자인 하였다. 40~50대 여성들이 즐겨 입을 수 있는 패딩 원피스이다. 독특한 패턴의 형성으로 의상에 예술성을 돋보이게 디자인한 작업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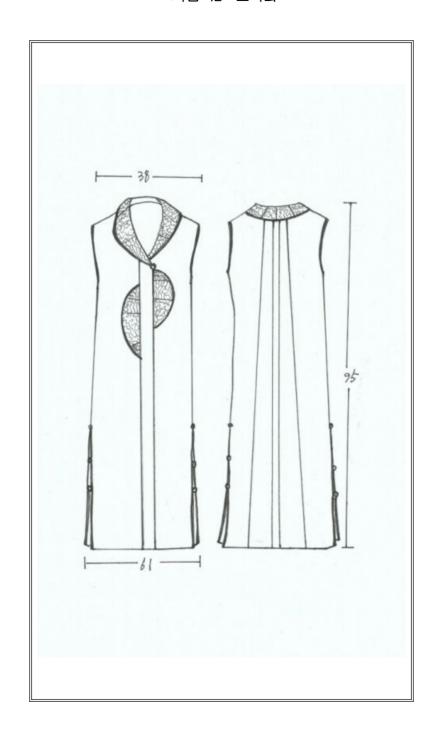


<작품 12> 사진





<작품 12> 도식화



<작품 12> 작품 설명

| 아이템 | 슬리브리스 원피스 겸 롱 베스트 |
|------|---|
| 소재 | 모시. 춘포, 쪽, 황벽 |
| 색상 | 초록 계열 |
| 기법 | 역색 : 쪽, 황벽, 치자 주름 : 곡선박기(칼라. 앞면 원형 디테일) |
| 작품설명 | 쪽과 황벽, 치자로 복합염색을 하였다.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로 안에 민소매원피스를 입고 긴 베스트처럼 겉에 걸쳐 입게 제작하였다. 모티브는 한복의 둥굴레 깃을 형상화하여 퓨전 의상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추대신에 매듭으로 전통성을 강조하고 가슴 부분에 있는 원의 모양은 우리나라 태극선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디자인을 하여 현대의상에 전통 패턴을 접목한 디자인이다. 얇은 여름 소재라서 모시로 만든 주름은 딱딱한 느낌의 텍스타일 표현이되었다. 초록계열의 인접색상 조화를 염두에 두고 염색을 하여 색을 표현하였고 모시나 춘포의 부러지는 느낌이 주름효과를 반감하였다. |





<작품 13> 사진





<작품 13> 도식화





<작품 13> 작품 설명

| 아이템 | 코트, 가방, 부츠 |
|-------|---|
| 소재 | 양모 .스웨이드, 감물, 쪽, 황벽,치자 |
| 색상 | 녹색 계열 |
| 기법 | 염색 : 감물, 쪽, 황벽, 치자 주름 : 곡선박기(칼라, 포켓) |
| 작품 설명 | 돈피 스웨이드를 칼라에 적용하여 주름을 잡았고 포켓에 디테일로 활용하였다. 염색은 감, 쪽, 황벽, 치자로 복합염색을 하였으며 싱글 여밈으로 오픈하여 입을 수 있고 단추를 여미면 모던한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가방과 신발을 함께 제작하여 토탈 코디네이션을 제안하였다. 칼라와 가방에 조형적인 감각을 표출하려고 주름을 잡았고 기능성을 주기 위해 가방은 크게 제작하였고 부츠는 발목이 조이지 않게 끈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함에주안점을 두었다. 평범한 디자인일 수 있으나 주름기법으로 입체감을 주어 독특한 질감으로 차별화한 작품이다. 스웨이드를 쓰지않고 양피로 주름을 잡았다면 좀 더 정교한 장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보색을 적용한 색상대비가 강렬한 느낌으로 부각되어 작업을 하면서 아쉬운 감이 있었다. |



Ⅲ. 결론

본 연구는 천연염색한 원단으로 주름이라는 표현장식을 적용하여 디자인하고 봉제 테크닉을 이용한 조형적인 표현기법으로 응용하여 패션 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천연염색한 원단은 흔히 시중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며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들이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화학염색보다 번거롭고 힘이 들어 노동력이 요구되지만 천연염색은 인체에 해가 없고 색상이 은은하여 모든 이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자는 천연염색한 원단으로 주름이라는 조형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고급화한 의상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주름의 디자인적 특성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장식적이고 기능적이며 상호, 유기적이라고할 수 있으며 의상디자인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주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봉제 테크닉과 화학적 처리로 생성하는 기계적인 주름이 있는데 봉제테크닉의 주름은 의상디자인에 있어서 고대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자연스런 드레이프 주름도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현대에 오면서 과학의 발달로 인한 기계로 접은 영구적 주름의상은 실용적으로 애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처리가 가공된 재료를 이용하여 봉제 테크닉과 수작업으로 열을 가해 주름을 잡아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여 의상에 접목하여 부분적으로 의상디자인 했고 또는 원단으로 만들어 패턴을 재단하여 의상을 제작 하였다. 본 연구자의 의상은 천연염색을 하여 독창적인 문양을 표현하였고 소재를 달리하여 만든 주름공정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패션 디자인을 전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염색과 봉제테크닉으로 인한 주름기법을 사용해 의복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가시키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특수 가공된 재료를 활용한 주름기법으로 요철이 있는 볼륨을 주어 입체감을





부여하고 표면적인 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었고 다양하고 독특한 감성을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 있는 효과를 주었다.

셋째, 의상디자인을 하면서 소재에 대한 갈구가 있었는데 특수 가공재료의 주름 효과를 통해 예술적인 창작성을 표현하고 아울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을 개발 할수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수 가공된 재료는 물에 넣으면 녹기 때문에 아래에 고정할 천을 붙여야 하는데 딱딱한 질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 다. 얇은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든 기계주름처럼 부드럽게 표현되지 않아 이 기법을 의상에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디자인 구성상 많은 부분 에 이 주름기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느꼈다. 기계에 의한 제작이 아닌 수공 예적인 주름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앞으로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새 로운 신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공 테크닉에 맞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발하여 그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은 계속 개발 되 어 지금보다 더욱 개성 있고 독특한 미적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유승옥, 이은영외. 「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6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81

김은하. 「클래시시즘 패션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정동림. 「 섬유염색 」 교학연구사. 서울. 1999

한순자. 서옥경외. 「서양복식문화사」서울, 예학사, 2001

김혜경. 「패션트랜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2004

유선태. 「현대 섬유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95

김성현, 서윤종. 「천연염색」서울, 한출판, 2004

이종남. 「우리가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 현암사, 2004

정옥기. 「오방색으로 하는 천연염색」서울, 들녘, 2010

김지희. 정관채 공저.「 전통에서 현대까지 자연염색공예 」

서울, (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9

송화순.「 아름다운 우리의 색 천연염색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조경래. 「 천연염료. 염색사전 」 부산, 보광출판사, 2001

라사라 교육 개발원.「 20세기 모드의 역사 1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1991

「20세기 모드의 역사 2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1991

안명숙. 장애란외. 「현대인의 패션」 서울, 예학사, 1999

사라E. 브래독 마리오마호니. 허성희, 김정규 옮김. 「테크노 텍스타일」

서울. 예경. 2012

클레트 울프. 양경희옮김.「 패션 섬유 조형 예술 | 서울, 에코모다, 2011

송번수.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김인화. 「 기초재봉실기 」서울, 한국 산업 인력 공단, 2006

「 2002 S/S. 파리. 밀라노 콜렉션 _| 동아 TV.CH 34

「 2007 F/W.서울 콜렉션북 _I

THE FIBERATS DESIGN BOOKIL LARK BOOKS, 1983





THE FIBERATS DESIGN BOOK SIX LARK BOOKS, 1 1999

TEXTILES THE ART LF MANKIND, THAMES& HUDSON, 1 2012

학위논문

범영순 (2007). Puckering technique을 활용한 패션조형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이유경(1994).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플리츠와 러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곽혜영(2000). 의상 디자인의 주름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박희선(2005). 주름을 이용한 텍스타일 제품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고경남(2006).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디자인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웹사이트

http://enjoypaper.com

http://www.daum.net

http://www.naver.com

http://terms.naver.com

http://blog.naver.com

http://article.joins.com

http://www.ilyosisa.co.kr

http://daliin.com

http://emilyartsinnovation.wordpress.com

http://www.rjcc.or.kr

